metro®

메트로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제3053호 www.metroseoul.co.kr

아시안게임 선수단 결단식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의 결단식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한국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영화 흥행 질주 거침없다

1700만 '명량'이 점화 해적·타짜 돌풍 예고 연말까지 강세 탈 듯

상반기 부진했던 한국영화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탔다. '명량'을 시작으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과 '타짜-신의 손'(이하 '타짜2')까지 이어지는 흥행 릴레이로 한국영화가 모처럼 웃었다. 올 연말까지 마련된 라인업도 여느 해보다 풍성해 한국영화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명량' 돌풍 '해적' '타짜2' 기세 이어가

올해 한국영화의 상반기 관객 점유율은 43.0%로 5년 만의 최저치였다. 침체의 늪에 빠져 들던 한국영화는 지난 7월 30일 개봉한 '명량'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내세운 '명량'은 개봉과 동시에 흥행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 기록을 시작으로 역대 최고 평일 스코어, 역대 최고 일일 스코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유례 없는 흥행 속도로 개봉 1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18일째인 지난달 16일에는 '아바타'를 제치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한국영화 사상 최고 매출액을 기록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흥행작이 됐다. 9일 기준 누적 관객수 1734만 관객을 기록하고 있다.

'명량'을 기점으로 관객들의 관심은 다시 한국영화로 집중됐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과 '타짜-신의 손'이 이를 이어 받았다.

'해적'은 당초 여름 대작들 중 최약체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달 6일 개봉 이후 '명량'과 함께 쌍끌이 흥행을 이끌었다. 개봉 16일째인 지난달 22일에는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는 뒷심을 발휘했다. 가족 관객을 겨냥한 코미디 영화라는 점에서 추석 연휴 동안 일일 관객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10일 오전 9시에는 누적 관객수 800만을 돌파했다.

'타짜2'의 기세도 무섭다. 지난 3일 개봉한 '타짜2'는 첫 날 20만1164명의 관객 기록으로 올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중 최고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박스오피스 정상을 굳건히 지키며 개봉 7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최단 기간 200만 돌파 기록이자 전작 '타짜'보다 하루 빠른 속도다.

'명량' '해적' '타짜2'의 흥행에 힘입어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은 9일 기준 52.0%까지 상승했다.

◆ 다양한 장르·스타 작품 개봉 준비 중

한국영화의 상승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느 해보다 풍성한 라인업이 올 연말까지 예정돼 있다.

오는 10월에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극장가를 찾는다. 코미디 영화 '슬로우 비디오'는 300만 관객을 동원한 '헬로우 고스트'의 김영탁 감독과 차태현이 재회한 작품이다. 정우성은 '심청전'을 모티브로 삼은 치정멜로 '마담 뺑덕'으로 스크린에 돌아온다. 신민아·조정석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정경호·정유미·김새론 주연의 스릴러 '맨홀', 줄기세포 스캔들을 다룬 실화 바탕의 드라마 '제보자'도 개봉 예정이다.

스타 배우들의 활약도 한국영화 상승세에 힘을 싣는다. 설경구와 박해일이 처음으로 만난 '나의 독재자'는 올 가을 중 개봉을 확정했다. 이병헌·전도연·김고은 주연의 무협 액션 '협녀: 칼의 기억'도 현재 후반 작업 중이다.

김윤석·정우·한효주·김희애 주연의 '쎄시봉', 이정재·신하균의 액션영화 '빅매치', 황정민·김윤진 주연의 '국제시장' 등도 하반기 기대작으로 손꼽힌다. 김우빈·이현우의 '기술자들', 주원·설리·안재현·박성오 등이 함께 한 '패션왕' 등 청춘스타들을 내세운 작품들도 하반기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내년 담배 4500원

내년 1월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상분에는 기존 담뱃세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등과 함께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이 삽입돼야 하며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 내 광고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담배 사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가 준수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명분은 충분하지만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황재용기자 hsoul38@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표절과 오마주

기자 수첩
전 효 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가수 박재범의 신곡 '소 굿'을 듣고 있으면 마이클 잭슨이 떠오른다. 잭슨 특유의 호흡과 창법, 움직임이 '소 굿'의 경쾌함을 더한다. 박재범은 새 앨범 쇼케이스에서 "우상 마이클 잭슨에게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이 노래를 소개했다.

'소 굿'을 통해 표절과 오마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오마주(hommage)는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이다. 표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존경 대상이 지닌 필(feel)을 착안하는 데 있다. 또 누구나 보고 들으면 알 수 있는 상징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오마주다. 단순히 원작의 일부분을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소 굿'을 보면 마이클 잭슨이 떠오르지만 이를 두고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논리와 같다.

최근 가요계에선 오마주가 화제였다.

티아라 효민의 '나이스 바디' 티저 영상은 미국의 로빈 시크 '블러드 라인스'와 비슷해 논란이었고, 소속사는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라고 해명했다. 현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음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가사의 일부가 그룹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가사와 비슷해 논란이 일었고, 현아의 곡을 작사·작곡한 임현식은 "god에 대한 오마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마주를 받아들이는 원작자의 반응이 문제였다. god의 김태우는 "오마주 한 것은 감사하나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뒤늦게 소식을 접해 유감스럽다"고 달갑지 않은 심경을 전했다.

오마주가 표절의 '그럴 듯한' 해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마주는 예술 용어이기에 앞서 예의의 차원이다. 창작물에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는다면 오마주를 간단하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아티스트를 향한 존경심이 얼룩지고 있어 안타깝다.

이자·연금 소득도 건보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 등은 제외

앞으로 이자나 배당금, 연금소득 등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매겨지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획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소득과 상속·증여소득의 경우는 부과 대상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 기획단은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산이나 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매겨온 지역 가입자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 요소는 종전보다 축소·조정될 예정이며 자동차의 경우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기획단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험료 경감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이번 논의로 결정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 방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9월 중으로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3국 수석대표 윤병세 장관 예방 윤병세(오른쪽에서 두번째)외교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접견실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 24일 유엔총회 연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밝힐 듯

박근혜(사진) 대통령이 오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제 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유엔 안보리 정상급회의 등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경제사회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역내 국가 간 신뢰 증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현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시리아 공습 주저하지 않겠다"

오바마 테러척결 '초강수'…IS 응징 천명

"시리아 공습 주저하지 않겠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 대책과 관련, 이같이 말하며 '초강수'를 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정책 연설을 통해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IS에 대한 체계적 공습, 이라크와 시리아 내부세력 지원, 실질적인 테러방지능력 강화, 인도적 구호노력 강화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공습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간 꺼려온 시리아 공습을 공언한 것 자체로 중동 전략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이라크와 관련해 "지난 6월1일 수백 명의 미군을 파견했고, 이 덕분에 새로운 이라크 정부가 들어섰다"면서 "훈련, 정보 습득, 장비 등의 측면에서 이라크와 쿠르드군을 돕기 위해 475명의 미군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전투 임무를 띠고 있지 않다"면서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가 파병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는 약 16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미국이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등 37개국과 아랍연맹 등 국제기구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i@

뉴스&뉴스

與, 비리 혐의 박상은·조현룡 당원권 정지

● 새누리당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주치의에 서창석 교수 내정

● 박근혜 대통령의 새 주치의에 서창석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내정,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서 교수는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 주치의에서 물러난 이병석 연세대 의대 학장의 후임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차관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 또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 순방, 지방 방문 등 모든 일정에 동행한다.

정부, 50대 월북자 신병 판문점서 넘겨받아

● 정부는 월북자 김모(52)씨의 신병을 11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에서 경기도 안성에 살던 김씨가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왔다면서 판문점을 통해 김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 우리측이 신병인수에 동의해 이날 송환이 이뤄졌다.

"비대위원장 외부서 영입"…이상돈 거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사진)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며 "정치와 정당 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현실 정치에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일부 측근들은 "사퇴라고 하면 안된다"고 말해 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으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거론되고 있다.

/조현정기자 jhj@

여론 뭇매 '담뱃값 대폭 인상'

issue&view
정부의 '꼼수' 세수 증대안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공평과세' 원칙 지켜야

정부의 세수 확충을 위한 얄팍한 꼼수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는 11일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현행 2500원인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내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물론 관련법 개정 등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의 이유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998~2011년간 남성흡연율이 소득 상위층은 19.3%로 떨어졌지만 하위 층은 15.2%만 하락했다. 소득수준이 상위(309만 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이지만, 하위(103만 원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9.8%가 더 높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종합금연대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장관, 최경환 기재부 장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연합뉴스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흡연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모순이 많다. 실제로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했다. 정부도 이런 흡연실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주장들을 앞세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조세저항을 줄이면서도 고정적인 세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흡연운동을 벌였던 시민 단체들까지 나서 이번 조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납세자연맹 등은 각각 논평을 통해 "담배세 인상이 국민흡연율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정책의 일부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공평과세의 원칙, 사회적 합의 선행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진드기 신종 감염병, 첫 발견

항생제 투여로 치료 가능

'살인진드기' 병으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증상이 비슷한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아나플라스마증'으로 알려진 이 감염병은 다행히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11일, 진드기로 옮기는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유행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신종 감염병은 아나플라스마(anaplasma)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지난해부터 유행하는 SFTS와 증세가 매우 비슷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 병으로 확진된 57세 여성 박 모씨(강원도 거주)는 지난해 5월 강원도에서 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구역·혈압감소·혈소판감소증이 발생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박 씨는 다음날부터 독시사이클린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항생제 치료에 반응해 7일만에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

오명돈 교수는 "지난해부터 유행하는 SFTS는 치료제가 아직 없지만, 아나플라스마증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며 "진드기에 물린 다음에 발병하면 어느 쪽인지 진단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즉시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정영일기자

홍대 앞, 주말엔 '차 없는 거리'로

서울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가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로 바뀐다.

서울 마포구는 13일부터 매주 토·일요일 홍익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보행전용거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는 경의·공항선 홍대입구역 7번 출구부터 KB국민은행 서교동 지점까지 연장 30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버스킹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나무 무대와 야외광장 등이 설치돼 차량보다 보행자가 많은 곳이다.

홍대 앞 보행전용거리는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진입부 3곳에서 차량 통행이 제한돼 차량은 홍익로6길로 우회해야 한다. /윤다혜기자 ydh@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 여부 이달 판가름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 승인 여부가 이달 안에 판가름 난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의 최종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달 말께 임시개장 승인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임시개장 승인과 관련 지난 6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제2롯데월드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16일까지 진행된다. 또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 훈련과 점검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추가 점검을 시작한다.

시는 추가 점검에서 석촌호수 주변 안전상태, 교통상황, 초고층 타워동 공사장 안전 등을 주로 살필 예정이며 종합방재훈련도 할 계획이다.

15일부터는 롯데 측이 내놓은 교통대책과 관련, 주차장 예약제 준비과정 등 임시개장에 따른 교통상황 모니터링에 주력한다.

17일부터 송파구, 송파경찰서, 롯데 관계자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통량과 차량 운행속도, 대중교통 이용실태, 보행량을 관찰할 계획이다. /이정우기자 cyclone@

'대선 개입' 원세훈 집유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다혜기자

구 분	일반(1일 교육)	
	초급교실	중급교실
참가대상	가족단위 · 개인 · 단체	
운영장소	수도권 10개소	지방 5개소
운영시기	토, 일, 공휴일	
참가비	5,000원 청소년 참가비는 무료	
기타사항	참가비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018년 문·이과 없어진다

통합 사회·과학 도입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교생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우게 된다. 또 교과 과정에는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는 12일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위원회의 발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문·이과 구분 없이 기초소양을 기르는 '공통과목'과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과목은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이 8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 수업)로 신설되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기초적인 내용이 담긴다. 특히 사회와 과학 과목은 해당 교과 영역의 내용을 포괄적인 '대주제' 중심으로 정리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신설된다. 또 과학 교과에서 실험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2단위짜리 '과학탐구실험'이 공통과목이 된다.

이번에 마련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이번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4일 교육부 차원의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확정된 새 교육과정은 2017~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후임 상습폭행' 병장 구속

세종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 등으로 A(22) 병장이 구속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A 병장은 1월부터 수개월간 후임병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하다가 적발됐다.

A 병장은 내기 게임 등을 강요하며 후임병을 괴롭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부대 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윤다혜기자

가을 전령사 코스모스 '활짝' 11일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활짝 핀 강릉 경포호수 인근의 경포 생태 저류지(10ha)에서 관광객이 가을의 낭만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안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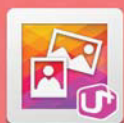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연안여객선에서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로 도입하는 300t 이상 선박은 이날부터 선박의 위치·속력·조타실 대화내용 등의 운항정보를 기록한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

500t 이상의 기존 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한다. 전체 연안여객선 170척 가운데 500t 이상은 21척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다혜기자

남해안 적조 확산…물고기 집단 폐사 11일 적조경보가 내려진 경남 남해군 미조면 한 가두리 양식장에 3~4년간 키운 참돔 4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물에 떠오르자 어민들이 뜰채로 퍼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도 내년 1월2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윤다혜기자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靚女高材生山區教

metro France

"Merci pour ce moment" de Trierweiler : démarrage rec que "50 Nuances de Grey" !

CRÉÉ : 09-09-2014 17:41

TRIOMPHE - Avec 145 000 exemplaires vendus, de jeudi à dimanch publié aux éditions Les Arènes, réalise le meilleur démarrage de l'a d'ouvrage confondues.

En dépit de la grogne de certains libraires, le livre de l'ex-Première dame dépasse toutes les attentes.

대통령 전 부인 회고록 불티

프랑스 대통령의 전부인이 출간한 회고록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의 전부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의 회고록이 출간 4일만에 14만5000권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4년에 출간된 책 중 가장 높은 부수다. 판매부수를 집계한 GFK연구소 대표 세바스티앙 루올은 "올해 출판된 책 중 출간 일주일 내에 가장 높은 판매부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metro Brazil

38% relatam falta de água em São Paulo

Ibope. Pesquisa aponta que 41% das pessoas que disseram ter o abastecimento interrompido sofrem "sempre" com o problema

10,7% era o índice de volume armazenado no Sistema Cantareira ontem, segundo dados da Sabesp.

상파울루 물 부족 심각

브라질 상파울루의 물 부족이 심각하다. 여론조사 기관 이보페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민 38%가 최근 3개월 동안 가정 내 물 공급 중단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41%는 빈도 수와 관련해 '항상'이라고 응답했으며 37%가 '가끔', 15%가 '드물게' 그리고 7%만이 '한 번'이라고 답했다. 물 공급이 안되는 주요 원인으로 응답자의 37%가 '댐 안의 저수량 불충분'이라고 답했다.

선생님 때문에 주말도 공부

시골 초등학교서 자원봉사 눈길…색다른 수업 방식에 성적도 '쑥'

중국에서 9월 10일은 스승의 날이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독특한 이력이 있는 미모의 자원봉사 교사가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6월 쓰촨대학 법학과 석사를 수석으로 마친 주징(祝靖)은 박사 진학에 안타깝게 실패했다. 이후 그는 원하는 일자리도 찾지 못해 패배감에 휩싸인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주징은 몇 달 뒤 일시적인 도피처로 시골 학교를 찾았다. 자원봉사를 하며 머리를 식히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비행기에서 기차로, 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구이저우성 싱이시에 있는 아이(阿依)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이 곳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에게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맨발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아이들, 쓰러져가는 집은 모두 낯설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교사에 대한 꿈이 되살아났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

주징은 6학년 영어수업을 맡았다. 영어 공부에 소극적인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달러 마트'를 열고 '가짜 달러'도 만들었다. 성적이나 태도가 우수한 학생들은 달러를 받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업 시간마다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줬다.

'얼짱' 교사의 색다른 수업 방식에 아이들은 환호했다. 공부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이 주말에도 학교에 오고 그의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가 온 뒤 6학년 학생들의 영어 성적은 마을 전체에서 가장 좋았다.

주징은 "아이들만 배운 것이 아니라 나도 많이 배웠다. 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졌다"면서 "비싼 옷보다 마을 주민이 선물한 채소가 더 가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순간의 '충동'으로 교사 경험을 하게 된 주징은 현재 국영기업에서 일을 하며 짬짬이 학생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있다.

미모의 자원봉사교사로 '인터넷 스타'가 된 데 대해 그는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교사에 지원하길 바란다"며 "인생에서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Столица пригот сани осенью

"크리스마스를 미리…" 시원한 박람회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뜨레찌야코프 미술관에서 한여름 더위를 잊게 만드는 시원한 박람회 '크리스마스 타임'이 열렸다.

2015년 새해를 100일 앞두고 열린 박람회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인공 눈,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 눈사람, 각종 크리스마스 소품 등이 전시됐다.

박람회 코디네이터 스베틀라나 아베니로바는 "가족 단위 방문객보다 사업가와 업계 종사자들이 박람회를 많이 찾는다"며 "올 크리스마스의 유행 아이템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강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업무상 이곳을 찾은 사업가도 박람회 분위기에 이끌려 곧 동심의 세계로 빠져든다"며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지도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박람회를 찾은 마리나는 "손자를 데리고 박람회에 왔다"며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정말 좋아한다.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직접 인공 눈과 눈사람을 만져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가족의 나들이 공간으로 좋다"며 "예쁜 배경에서 손자와 기념사진도 많이 찍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방문객 니콜라이는 "사업상 박람회에 왔다. 크리스마스 전구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며 "올해 유행 아이템을 미리 알 수 있어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아베니로바는 "박람회 덕분에 모스크바가 벌써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 것 같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지는 모스크바의 크리스마스에 우리 박람회도 한 몫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율리야 두드키나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1일>

코스피 2034.16 (−15.25)

코스닥 573.70 (+1.33)

금리(국고채 3년) 2.51 (−0.01)

환율(원·달러) 1036.00 (+11.00)

LG유플러스, 홈CCTV '맘카 2' 출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홈CCTV 기능을 가진 맘카의 비디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U+인터넷 고객은 물론 타사 인터넷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홈CCTV '맘카2'를 11일 출시했다. /LG유플러스 제공

가계대출 증가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14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97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6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지난해 6월(4조6000억원) 이후 1년 2개월만에 최대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조6000억원 늘었고,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은 115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의 증가, 정책모기지론 취급 확대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면서 "반면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부가 신용대출 상환에 이용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이후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의 월평균 증가폭은 1조원 수준이었다. 기업의 원화 대출(663조원)도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한달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 7월(2조7000억원)보다 증가세가 확대됐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은 줄었다. CP(1~20일 기준)는 공기업의 부채 감축 등 영향으로 8000억원 순상환됐고, 회사채도 300억원 순상환됐다.

은행 수신 잔액(1206조6000억원)은 7조8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정기예금은 예금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2조4000억원이 줄어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양도성예금증서(−2조4000억원), 은행채(−1000억원) 등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김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LG, 글로벌 마케팅 '눈길'

대형 이벤트 vs 시장별 인기 구단 후원

스포츠는 일상 속 한 부분으로 녹아 들었을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제경기부터 야구, 축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열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효과를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올림픽 후원이다. 삼성전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참가한 후 1997년 IOC와 TOP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까지 하·동계 모두 합쳐 9회 연속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활동했다.

지난달에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였던 후원 계약을 2020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계약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공식 후원하게 됐으며 20년 이상 활동한 올림픽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후원 범위를 기존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노트북, 데스크톱, 프린터 등의 제품까지 포함하기로 해 더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됐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개막하는 제 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최고 파트너로 활동한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광장에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반면 LG전자는 세계 각국의 시장을 개척하며 현지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구단을 후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류현진과 추신수가 활약하고 있는 LA 다저스와 텍사스 레인저스를 후원하고 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뛰고 있는 구단들인만큼 국내에서도 홍보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레버쿠젠과 3년간의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소속 선수들이 LG전자의 스마트폰 G2가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국민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농구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주요 제품 출시 행사 때 필리핀 농구대표팀을 초청하고 칼리지 농구리그 우승팀 산 베다를 7월부터 후원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LG전자 필리핀 법인이 창원 LG 세이커스 농구단을 현지로 초청해 인기 구단인 히네브라 산미구엘과의 친선경기를 열기도 했다. 이날 경기장에는 별도 부스를 차려 스마트폰 G3, 울트라HD TV 등 전략제품을 전시하고 추첨을 통해 관중에게 G3와 G워치를 선물하는 등 브랜드 노출 효과를 봤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가을에는 데님으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게스 프리미엄 위크'에서 모델들이 셔츠 스타일 재킷과 이민호 데님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GS건설, 부분임대형 평면 첫 선

최근 임대수익을 극대화한 부분임대형 평면이 주목받는 가운데, GS건설 자이(Xi)가 부분임대형 평면을 적용한 아파트를 처음 선보인다.

GS건설은 오는 19일 분양에 들어가는 '보문파크뷰자이' 전용면적 84㎡에 부분임대형 평면 49가구를 도입, 이 중 3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보문3구역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지하 7층~지상 20층, 17개동, 전체 1186가구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45㎡ 161가구 ▲59㎡ 24가구 ▲72㎡ 147가구 ▲84㎡ 151가구 등 483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서울지하철 6호선 보문역과 창신역, 1·2호선 신설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도심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 고려대, 한성대, 카톨릭대, 성신여대 등의 유명 대학과 가까워 직장인 및 대학생 임대수요가 풍부한 입지를 갖췄다.

부분임대형 평면이 적용된 '보문파크뷰자이' 84F타입.

GS건설은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이라는 '보문파크뷰자이'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임대형 평면을 적용했다.

앞서 지난 2012년 GS건설은 한 세대를 두 개의 독립 주거공간으로 만들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임대수익을 위한 유닛'을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도심지와 대학가 주변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임종승 보문파크뷰자이 분양소장은 "아파트가 갖는 입지적 강점을 살려 GS건설 자이가 개발한 부분임대형 평면을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임대수익을 노리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꽤 많아 인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9820@

삼성 크레듀는 여성천하

100명 중 65명이 여성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여직원 수가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기업은 6곳으로 조사됐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92곳의 반기보고서(6월 30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내 크레듀의 여직원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롯데쇼핑(59%), LG생활건강(54%), 한화타임월드(53%), 한화손해보험(53%), 오리콤(52%)이 뒤를 이었다.

여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였다. 롯데그룹의 여직원은 총직원 4만6952명의 45%인 2만1129명으로 집계됐다.

SK(32%), 한화(32%), 한진(31%)의 여직원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삼성그룹과 LG그룹은 전체 직원 중 각각 25%, 21%가 여직원이었고 GS의 여직원 비율은 11%였다.

반면 조선, 자동차 등이 핵심인 현대차(5%), 현대중공업(6%), 두산(8%)의 여직원 비율은 낮았다. 10대그룹 전체 여성 비중은 11% 수준이었다.

한편 총 직원 수가 1000명 이상인 10대 그룹 상장사 중 여직원 계약직이 한 명도 없는 곳은 LG디스플레이와 GS리테일, 두산엔진 등 3곳으로 나타났다.

LG디스플레이는 직원 수가 3만2816명에 달하는 큰 기업이지만 남녀 직원을 모두 포함해 계약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박성훈기자 zen@

명절 결혼 증후군

결혼 안 한 자녀 때문에 속 타는~ 가족 등살에 속 터지는~

결혼적령기 넘긴 자녀때문에 속 타는 부모마음...

서울 강남구에 거주 중인 김경원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지, 해는 넘어가지… 걱정이 크죠." 하미숙씨(56세 · 서초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ㅁ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하태경씨(61세 · 용산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딸은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문의 : 080-586-5000

Beautiful ONE

元[으뜸 원]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종합 1위 기업, 가연"

〈랭키닷컴 2011, 2012, 2013 기준〉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 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4년 연속 및 '대한민국 중소 ·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 브랜드 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 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 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입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연은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을 총망라한 제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사 미혼직원을 위한 결혼지원 서비스 및 '미팅파티' 를 통해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서울 테헤란로에는 만남부터 결혼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17층 전관을 결혼 서비스에 특화 시킨 '가연타워' 가 있다.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극대화하는 업계 최대규모의 단일 사옥은 '고객중심 경영철학' 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문의 : 080-586-5000

願[바랄 원] "결혼은 내가 원하는 상대와 해야죠"

제대로 된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은 따로 있다

대기업 연구원 서승필씨(30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 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사전 정보없이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선택할 수는 없는 법.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 해 봐야 할 내용들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와 서비스 품질 및 사후 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 엄격한 회원 신원 인증 절차와 철저한 보안. 그리고 전문적인 커플 • 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알아보고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 080-586-5000

援[도울 원] "결혼 고민 앞에 망설일 필요는 없죠"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결혼정보회사의 문 앞에서 다소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가연결혼정보(주) 노애숙 팀장은 이렇게 조언한다. "결혼에 대한 고민조차 마음껏 털어놓을 수 없다면 과연 어떤 고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장 큰 역할은 물론 회원이 원하는 최적의 배우자상을 찾아 드리는 일이예요. 하지만 그 전에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고민, 부담, 어려움에 대해 심층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커플매니저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결혼정보회사와 커플매니저가 수행하고 도움을 드리는 거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 하면 등급이라던지 노블레스라던지 하는 선입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고, 저희 가연에는 전문직부터 일반 직장인까지 많은 회원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배우자상이 다르고 그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고 있죠. 그런의미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분들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용기와 가치를 지닌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드린다면?

주저함과 망설임은 잠시 미뤄두셨으면 합니다. 결혼정보회사나 커플매니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 상대, 결혼생활, 혹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민 등에 대해서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이자 전문적인 조언자니까요.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을 결정할 때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건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들, 방향성 제시겠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고민하는 미혼남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자 보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의 : 080-586-5000

수준 높은 회원수와 기록적인 성장률, 앞서가는 가연이 고객 여러분께 더 큰 만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만든 만족도 각종 미디어의 설문조사와 전문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친 수상 내역을 통해 높은 고객만족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회원 확보 전문직, 대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과의 제휴 네트워크를 통한 수준 높은 회원 확보로 추천 단계부터 그 격이 다릅니다

고객 권익 보호시스템 공정위 표준약관 준수와 철저한 신원인증 및 관리로 개인 정보 보호는 물론, 계약완료 후 A/S도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최적화된 매칭시스템 이상형을 분석하고 찾아내기 위한 GMS를 기반으로 최적의 만남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대 규모 단일 사옥 국내 결혼정보업계 최대 규모의 단일 사옥을 자랑하는 가연타워는 17층 전관을 결혼서비스에 맞춰 특화시켰습니다

연중무휴, 가연의 커플매니저가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가연결혼정보(주)에서는 언제든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방문, 온라인 문의 등 고객의 편의에 따라 연중무휴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전담 커플 매니저가 지정되어 맞춤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본사와 동일한 시스템과 직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지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연타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2번지 ■전국 네트워크 | 서울본점 | 수원지점 | 경인지점 | 대전지점 | 대구지점 | 부산지점 |

상담 | 문의전화 **080·586·5000**

천연재료로 벌레 퇴치하기

짠순이 주부 경제학

무덥고 습한 여름철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모기부터 날벌레, 쌀벌레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벌레를 쫓기 위해 살충제를 온 집안에 뿌리고 싶지만, 유해성분이나 냄새 때문에 꺼린다. 천연재료만으로 벌레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바짝 말린 '계피'는 진드기 퇴치에 좋다. 계피 특유의 향과 매운 성분은 진드기는 물론 모기 등 벌레를 쫓는데 효과적이다. 계피를 이용해 직접 스프레이를 만들 수있다. 식물성 알코올에 계피 끓인 물을 10대 1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 사용한다. 침구류나 벌레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에 뿌리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흰색 천에 뿌리게 되면 자국이 남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수구, 환기구를 통해 들어오는 날벌레들.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해도 날벌레를 퇴치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토마토'가 제격이다.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환기구 주변에 문지르고, 남은 토마토 즙을 하수구에 뿌려주면 끝! 토마토 속에 있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벌레가 가장 싫어하는 향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살펴보면서 관리해주면 된다. 또 야외 활동할 때 토마토 즙을 이용하면 모기가 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쌀 속에 살고 있는 쌀벌레 역시 주부들의 고민거리다. 쌀벌레 제거에는 바로 '겨자'가 효과적이다. 쌀벌레나 바퀴벌레들은 겨자의 톡 쏘는 향을 싫어한다. 거즈에 겨자를 묻히고 한번 정도 묶은 다음에 쌀 보관하고 있는 곳의 구석에 넣어 둔다. 2개월을 주기로 교체해주면 된다.

이밖에 오렌지 껍질을 이용하면 모기 퇴치에 큰 도움이 된다. 1cm 너비로 길게 자른 껍질을 햇볕에 바짝 말린 후 껍질을 집안 곳곳에 두면 모기를 쫓을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글로벌 유동성 유입 기대감 높다

추석 후 증시, 미 FOMC 회의·스코틀랜드 국민투표 변수

추석 연휴 직후 증시 개장일이자 '네 마녀의 날'인 11일 국내 주식시장은 무난한 흐름을 보였다. 추석을 넘긴 향후 국내 유가증권시장은 기존 주도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횡보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됐다.

중장기적으론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 6'를 공개하면서 관련 부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고 코스닥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통 만기일에 나오는 프로그램 매물이 (연휴를 앞두고) 이미 지난주에 소화됐다"며 "전반적으로 만기일을 별 일 없이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의 조정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스코틀랜드 독립 여부, 엔화 약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16~17일)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의 한계점이 부각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게다가 엔화 약세로 국내 수출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섬유·의류, 통신, 화장품, 미디어, 제약·의료기기 업종의 주도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FOMC 회의 결과와 맞물려 오는 18일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보인다"며 "국내 주식시장은 당분간 두 요인을 주시하면서 조정 흐름을 이어갈 공산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유럽과 일본 등지의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엔화 약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성 일본계 자금이 국내 증시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본 투자자는 지난 4월 순매수로 돌아선 뒤 5~8월 내내 5000억원 안팎의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 예정인 1차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에 대한 은행권 참여가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유럽발 유동성의 힘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같은 움직임이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확대되면 추석 연휴 이후 글로벌 소비가 집중되는 IT가전, 자동차·부품 등 (수출) 업종의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복지체계 재검토해야" 강호 보험연구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한국미래연구원이 주관한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 제 6차 정례세미나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강연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KB 회장,오늘 금융위서 소명키로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12일 자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에 직접 나가 소명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행위가 타당했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중징계 조치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치기로 하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IBM 전산 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KB금융 측에서 은폐했으며, 국민은행 임원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오늘부터 KB금융 명동본점에서 임영록 회장의 사퇴를 위한 무기한 출근 저지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한화생명, 주말 밤마다 야외 음악회

한화생명은 가을을 맞아 '한화생명 문화놀이터-구석구석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연은 다음달 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밤 7시 서울 북서울 꿈의 숲 라포레스타 앞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이 공연에는 오케스트라밴드, 민요단, 뮤지컬팀, 락그룹 등이 참가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한화생명은 음악회 참가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응모함에 넣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오늘, 사랑합니다'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야외 음악회인 만큼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고 어른들은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며 "매회 500여명, 지금까지 2천명의 시민이 찾는 등 반응도 뜨겁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브랜드가치 3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

신한카드, 체크카드도 2개월 만에 50만장 돌파

신한카드가 금융회사로는 최초로 기업 브랜드가치 평가에서 3년 연속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했다.

11일 신한카드는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신용카드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3월에 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의브랜드파워'(K-BPI) 3년 연속 1위, 7월에 한국표준협회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 5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통합 이후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지난해 10월 '규모의 1등을 넘어 위대한 회사를 지향한다'는 의미의 슬로건 'BIG to GREAT'를 론칭한 이후의 각종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 시장에서 인정 받은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간 신한카드는 새로운 상품 개발 체계인 '코드나인(Code9)'을 론칭하고, 'Re:Frame'을 통해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을 혁신하는 등 브랜드가치 제고 활동을 착실히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발한 23.5°, S-Line 체크카드 등이 2개월 만에 50만장을 돌파했다.

또한 지난 3월 전 임직원이 정도영업, 고객 정보의 철저한 보호 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한 동시에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고 고객 보호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따뜻한금융 체험방'을 설치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의 BIG to GREAT 커뮤니케이션이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업의 모든 활동이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신한카드의 활동 하나하나가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공장 증설시 건폐율 완화

녹지·관리지역 내 2년간 한시적으로… 11월 시행 예정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설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공장에 대해 증설 시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공장부지 외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 증축을 하는 때도 40%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이 때는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을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모두 2년으로 통일했다. 지금까지는 농업은 2년인 반면, 임업·축산업·어업은 3년으로 돼 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삼성전자, 인천 아시안게임 판촉 프로모션 삼성전자가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을 맞아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돌입, 커브드 TV 대세화에 나선다.

/삼성전자 제공

레노버, 저가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 제치고 사상 최초 판매량 앞서

삼성전자가 세계 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으로 중국 레노버에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2분기 가격대별 스마트폰 판매량 집계 결과, 저가 시장에서 레노버가 삼성전자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거의 모든 가격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분기에 레노버에 역전을 당한 것이다. 다만 SA는 레노버와 삼성전자의 이 부문 실제 판매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저가 시장은 수익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지만, 스마트폰 시장 순위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무척 중요한 시장이다.

높은 판매고를 올릴 수 있는 보급형 시장에서 밀리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수위를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무게중심이 최고급 시장에서 보급형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갈수록 저가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SAMSUNG lenovo

레노버는 본래 IBM의 PC 제조부문이 주축인 회사로, 지난해 3분기 이후 현재 세계 PC 시장에서 HP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효성 건설부문, 수주액 1조 돌파

효성 건설사업부문의 수주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또 도급순위도 2009년 89위에서 올해 42위로 47계단 상승했다.

효성은 11일 건설사업부문의 수주금액이 2009년 1628억원에서 올해 1조 3000여억원으로 8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9위였던 도급순위도 42위까지 올라가는 등 5년만에 47계단 상승했다.

지난 1977년 효성건설로 출발한 효성그룹 건설사업부문은 효성 건설PU(Performance Unit)와 계열사인 진흥기업,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3개 회사로 구성됐고, 그룹내 7개 PG (Performance Group) 중 하나인 건설PG를 이루고 있다.

효성 건설PU의 도급순위는 2009년 89위에 그쳤지만 2010년 86위, 2011년 79위, 2012년 65위로 상승했다. 2013년에는 47위, 2014년 42위로 수직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주금액도 2009년 1628억원에 그쳤지만, 2010년 4646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11년 4682억원, 2012년 5553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 2013년 858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조 3000억원(예상치)을 수주해 2년만에 수주금액이 2배 이상 늘며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효성 측은 이런 실적이 진흥기업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건설계열사를 제외한 것으로, 부영 등 건설 전문 대기업을 제외하고 업계에서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013년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새 아파트 브랜드를 론칭해 고급화·차별화시킨 전략이 주효했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특화된 설계와 상품개발을 통해 고객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ksgit@

아이폰6·6플러스, 해외 직구 주의점은

부품수급에 따라 사후서비스(A/S) 제한
국가·통신사별 잠금 풀린 '언록' 제품 확인

애플이 지난 10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공개, 출시일을 19일로 발표했다.

오랜기간 애플의 신제품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한국이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를 해외에서 구입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해외에서 아이폰을 사서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 개인식별 모듈)을 꽂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한국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가 맞는 곳에서만 제품을 사야 했지만,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모델은 국내 이동사의 LTE 주파수를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사야할 필요는 없다.

아이폰6는 지원하는 3세대(3G)와 LTE 주파수에 따라 A1549(GSM)·A1549(CDMA)·A1586 세 가지로, 아이폰6플러스는 A1522(GSM)·A1522(CDMA)·A1524 세 가지로 나뉘어 출시됐다.

이들 모델은 모두 2.1㎓ 3G 통신망과, LTE 대역 1번(2.1㎓)·3번(1.8㎓)·5번(850㎒)·8번(900㎒) 통신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부품 수급 등 사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에서 산 제품이 국가별잠금(컨트리록)이나 통신사 잠금(캐리어록)에 걸려있을 경우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양성운기자 ysw@

에어부산, 오색나물 비빔밥 '인기'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 최초로 선보이는 오색나물 비빔밥이 승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메뉴는 다섯 가지 나물의 비빔밥과 에어부산 특제 고추장이 함께 제공된다.

에어부산의 기내식은 오색나물 비빔밥 이외에 굴 소스 새우볶음밥, 돼지고기 챠슈볶음밥, 머시룸 치킨샌드위치, 베이크 핫도그 등 노선별로 특색있게 구성됐다. 4개월 주기로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에어부산은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유일하게 국제선 전 노선에 따뜻한 기내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에어부산을 제외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지난해부터 기내식 유상판매(5000원~1만3000원)를 하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중국 저가철강 유입 '위험 수위'

국내 수입물량 60%… 중소형 철강사 도산 위기 직면

지난달 27일 철강업계 CEO들이 모여 국내 철강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산업부 제공

중국산 철강재의 범람으로 국내 철강시장에서 수입 철강재의 점유율이 40%에 육박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철강재 수입량이 171만6000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철강재 수입 증가 현상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내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수입량은 1481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한 물량이다.

중국산 제품들이 무서운 기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은 올해 1~8월 862만5000t으로 지난해보다 31.1% 증가했다. 이는 국내로 들어온 수입 철강재 물량의 58.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수입 철강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9.8%에 달했다. 철강재 판매 비수기인 지난 7월에도 수입재 점유율이 35.7%를 기록했다. 중국산 철강재의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점유율은 23.2%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이 2002년 전 세계 업체를 상대로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했을 당시에도 수입재 점유율은 30% 수준에 불과했다"며 "주요 철강 생산국 중에서 자국 시장의 수입재 점유율이 35%를 넘는 경우가 우리나라 외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철강업은 생존 불가능 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간 철강 생산설비를 과도하게 가동해 온 중국은 넘치는 물량을 해외 시장에 싼값에 팔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의 주된 원인이다.

지난달 철강업계 현안점검을 위해 모인 CEO들은 "중국산 저가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가격 하락을 압박하고, 저품질 철강재나 한국산으로 위장한 가짜 제품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기도 한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형 철강사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SK에너지, 인천AG 파트너… 선수단 차량 석유 단독공급 SK에너지가 19일 개막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선수단 차량 등 조직위원회의 모든 운영차량에 석유제품을 단독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SK에너지는 아시안게임 기간의 조직위원회 수송차량 총 2048대에 휘발유, 경유 등 차량용 석유제품을 1일 최대 약 4만8000리터, 대회 기간 전체 동안 약 160만 리터를 공급하게 된다. SK에너지는 또 아시안게임의 공식 후원사 중 최고 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사로 참여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SK에너지 제공

QM5 후속, 주행테스트 '포착'

다목적 차·크로스오버 카 스타일 조합

르노의 2세대 '꼴레오스'가 막바지 테스트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남부 유럽에서 주행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 차는 2016년 데뷔할 르노삼성 QM5 후속의 쌍둥이 모델이다.

테스트 차량은 위장막을 단단히 씌웠으나 외관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2011년에 나온 르노 R-스페이스 콘셉트카를 닮았다. 2세대 꼴레오스는 단순한 박스 형태를 넘어 다목적차(MPV)와 크로스오버카(CUV)의 스타일을 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세대 꼴레오스는 구형보다 크기를 키워 실내공간을 넓혔다. 이는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캡처(QM3)와의 간섭현상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의 또 하나 특징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개발한 CMF(Common Module Family) 모듈형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새로운 엔지니어링 콘셉트인 CMF는 차량을 엔진 주변부와 운전석, 프런트 언더 보디, 리어 언더 보디 등 4군데로 모듈화 해서 부품 설계를 공용화하는 개념이다.

꼴레오스 후속과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는 닛산 신형 로그와 캐시카이, X-트레일 등 중소형 SUV다. 이미 닛산 신형 로그는 르노삼성 부산공장에서 북미 수출형으로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QM5 후속 생산 준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엔진 라인업은 르노가 새로 개발한 4기통 디젤과 가솔린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르노와 닛산은 준중형차와 중형차, 대형차 모델들에 CMF를 차례로 적용해 생산할 예정이다. 나아가 CMF 적용 대상을 2015년에는 소형차, 2016년에는 시티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형차 라구나 후속은 SM5 후속과 플랫폼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와 닛산은 2020년까지 부품을 50% 정도 공유해 연구 개발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르노그룹 디자인을 총괄하는 로런스 반 덴 애커(Laurens Van Den Acker) 부회장은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모터쇼에서 "한국의 르노삼성 디자인 스튜디오와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중형 세단과 SUV를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CJ나이트레이스, 태백서 개최

국내 최강의 경주차들이 달빛 아래에서 격돌을 벌인다. 국내 모터스포츠인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시즌 하이라이트인 나이트레이스가 오는 13일 강원도 태백레이싱파크에서 개최된다.

이번 나이트레이스는 국내 유일의 야간 레이스다. 2012년과 2013년에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 선보인 이후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나이트레이스는 '슈퍼나이트(SuperNight)'라는 이름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돼 찾아온다.

'슈퍼나이트'는 서킷에 설치된 조명과 자동차의 램프에 의존해 진행되기때문에 레이스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로 F1의 경우, 야간레이스로 진행되는 싱가포르 GP는 시즌 최고의 이벤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야간경기가 펼쳐지는 태백레이싱파크의 경우, 산속에 있어 경기에 집중하기에 더 없이 좋다. 또 한가위의 여운이 남은 풍성한 달빛과 강원도의 맑은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이 더해져 야간경기의 즐거움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레이스는 야간레이스를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모터테인먼트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했다. '레이싱 인 더 문라이트(Racing in the Moonlight)'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벤트 참여자를 레이싱카에 태우고 서킷을 주행하는 '택시 타임' 등 다양한 일반인 참여 이벤트를 벌인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모터스포츠의 열기를 뜨겁게 달굴 화려한 록 공연이 펼쳐진다. 레이지본, 슈퍼키드, 위아더나잇 등 탄탄한 마니아층을 확보한 록밴드들이 태백레이싱파크 서킷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레이싱 경기와 록 공연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이번 '슈퍼나이트'는 모터스포츠 팬뿐 아니라 주말 나들이객에게도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호 CJ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표는 "많은 국내 모터스포츠 팬이 기다려온 야간레이스를 시즌 최고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슈퍼나이트는 모터스포츠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만큼 많은 분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택기자

지난해 슈퍼레이스에서 진행된 야간 경기 모습.

'이통사 때문에…' 알뜰폰 지각변동?

미디어로그 급성장…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선정도 변수

알뜰폰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이 발단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LG유플러스의 자회사 미디어로그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달 사업을 시작한 KT의 자회사 KTIS도 마찬가지 이지만 미디어로그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난달 27~2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에 미디어로그는 총 7408명의 가입자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SK텔링크 8103명, CJ헬로비전 6120명, 우체국 알뜰폰 6개 사업자 2541명의 가입자 증가와 비교하면 얼마나 가파른 성장세인지 알 수 있다. 이 기간 KTIS는 가입자 순증 66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로 인한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를 통한 우회영업을 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처럼 후발 사업자인 미디어로그의 빠른 가입자 증가세에 알뜰폰 업체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의 행보가 주목된다. 11일부터 SK텔레콤이 일주일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SK텔링크를 통한 가입자 이탈 방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LG유플러스의 일주일 영업정지 기간 미디어로그의 가입자 급증으로 인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영업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업계에선 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SK텔레콤 역시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SK텔링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에선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이통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과 대기업 알뜰폰에 밀려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중소 알뜰폰 업체의 판로 확대와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권 증진을 위해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를 최대 5곳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6개 알뜰폰 사업자와는 2016년 9월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체국 알뜰폰 추가 선정 소식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사활을 걸고 있다. 우체국 알뜰폰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선 일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우체국 알뜰폰 사업 추가선정에 들지 못 할 경우 연내 사업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과 대기업 계열 알뜰폰 업체들의 영향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외면한다면 결국 시장에서 이들은 무너지고, 이는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LG하우시스, 유럽섬유환경인증 최고등급 LG하우시스는 지아벽지가 유럽섬유환경인증협회로부터 만 2세 미만의 유아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베이비 클래스' 인증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LG하우시스 제공

몰테일 "혼수도 해외직구 시대"

최근 혼수품도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해외배송대행 서비스 업체인 몰테일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대표 혼수품으로 꼽히는 독일산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냄비, 그릇 등 배송대행 건수가 전월 평균 대비 약 25% 증가했다.

이처럼 예비 신혼부부가 독일 직구를 통해 혼수품을 구매하는 것은 독일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품질 만족도가 높고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성노 몰테일 독일 지사장은 "독일 쇼핑몰 특성상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며 "혼수로 독일산 생활 가전 제품을 구매한다면 지금이 최적기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몰테일에서 운영하는 직구 오픈마켓 '테일리스트'에서는 결혼시즌을 앞두고 대형 TV, 전자제품, 주방용품, 가구 등을 최대 68% 할인하는 '해외 직구 혼수품 기획전'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재영기자

"제2의 인터넷 도약기 이끈다"

백기승 KISA 원장 취임사서 포부

"대한민국 인터넷의 제2 도약기를 이끌겠다."

백기승(사진) 신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KISA의 노력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교감의 성장,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백기승 원장은 "KISA는 창의와 실험정신이 보장되도록 인터넷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가인터넷기반과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인터넷 이슈 선점을 위해 인터넷·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진흥과 관련한 정책역량을 혁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계 인터넷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세계기술표준과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물인터넷(IoT),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인터넷윤리 등 새로운 이슈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다만 시장의 주도적 강자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인터넷의 제2 도약기를 삼을 절호의 기회"라고 전했다.

백 원장은 "'줄탁동기' 의자세로 민관의 의견과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인터넷산업 진흥전략을 제시하고, 인터넷·정보보호 산업과 문화에 기회와 창의성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줄탁동기란 알을 깨고 나오려는 병아리의 힘인 '줄'과 어미 닭의 도움인 '탁'이 함께 이뤄져야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뜻이다.

이밖에 그는 KISA가 공공기관으로써 모든 정책과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백 원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진 KISA의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낭비와 누수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청렴과 윤리의 실천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 반부패와 청렴문화가 정착된 모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대 백 원장의 임기는 2017년 9월 10일까지 3년간이다. /이재영기자

"이통시장, 데이터 요금제로 전환돼야"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통신학회·한국방송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과거, 현재와 미래: 스마트 라이프로의 진화' 학술대회에서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이같은 제언을 했다.

'이동통신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평가'란 주제 발표에서 이 교수는 현재 음성 위주로 편성된 통신시장의 요금체계를 정보형태와 관계없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데이터 기반 요금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장으로 데이터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데이터 요금이 조정되지 않아 매출은 여전히 음성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미국에서는 음성·문자 무제한과 데이터 250MB 상품이 45 달러(약 4만6000원)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음성·문자 무제한과 데이터 5GB 상품이 6만7000~6만9000원에 출시되는 등 데이터 사용량과 최소 요금 기준이 높아 일반적인 요금제로 확산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사업자도 음성·문자 무제한에 소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3만~4만원대의 요금 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가 보편화되면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중 통신비 지출은 2011년 기준 4.3%로 1995년 2.2%에서 2001년 5.6%로 오른 이후 조금 하락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1년 기준 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 교수는 "데이터 수요가 폭주함에 따라 관련 망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비는 음성 수입에서 부담해 다수의 음성 이용자가 데이터 사용자를 보조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음성 수입 의존형 매출 구조에서 탈피해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삼성 블루 등 전세계 16개팀 롤드컵서 격돌

결승은 10월 19일 상암서

2014 시즌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출전 팀이 확정됐다.

라이엇게임즈는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개막 일주일을 앞둔 11일 전세계 16개 출전 팀을 발표하고 마지막 티켓 판매를 진행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중국 대표 팀들이 확정되면서 올해 롤드컵 본선 출전 팀은 지난해 14개팀에서 16개팀으로 확대됐다. 앞서 진행된 1·2차 티켓은 판매 시작 30여 분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세번째로 열리는 롤드컵이 더 큰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결승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표 SK T T1은 미국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려 e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리그오브레전드 이용자들을 '김치롤'이라 부를 정도다.

올해 롤드컵의 조별예선은 18일~28일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후 8강은 부산 벡스코에서, 4강은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며 대망의 결승전은 10월 19일 상암 소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GROUP : A조	GROUP : B조	GROUP : C조	GROUP : D조
Samsung White	Royal Club	Fnatic	Cloud9
AHQ	TSM	OMG	Nalin W Shield
Dark Passage	TPA	Samsung Blue	Alliance
Edward Gaming	SK Gaming	LMQ	Kabum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삼성 블루와 삼성 화이트, 나진 실드가 차례로 진출권을 확보했다.

삼성은 2팀 모두 롤드컵에 진출하는 쾌거를, 나진 소드를 출전시키는 나진 e-엠파이어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 시즌 연속 롤드컵에 소속팀을 내보내는 진기록을 세웠다.

유럽에서는 프나틱, 얼라이언스, SK게이밍이 출전한다. 북미 지역에서는 팀 솔로미드, 클라우드9, LMQ가 출전한다. TSM은 초창기 롤드컵으로 2011년에 열린 '라이엇 시즌 1 챔피언십'에도 출전한 경력이 있어 롤드컵 관련 모든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

동남아시아와 대만 지역을 대표할 2개팀은 아주부 타이페이 어쌔신과 AHQ e스포츠 클럽으로 모두 대만 출신이다. 두 장의 인터내셔널 와일드카드는 러시아·터키·오세아니아 지역이 한 그룹으로 묶이고, 라틴아메리카와 브라질 지역이 나머지 한 그룹으로 묶여 각각 1장의 진출권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터키의 다크 패시지와 브라질의 카붐e스포츠가 롤드컵에 모습을 드러낸다.

중국에서는 에드워드 게이밍, 로얄클럽, OMG 팀이 출전한다. 지난해 롤드컵 결승에서 우리나라에 석패했던 로얄 클럽은 이번에도 우승을 노린다. 로얄 클럽에는 우리나라 최인석 선수와 윤경섭 선수가 활동하고 있어 국내 팬들의 관심이 기대된다.

조편성도 공개됐다. 1번 시드를 받은 우리나라 삼성 블루는 OMG, 프나틱, LMQ와 함께 C조에 속했다. 2번 시드를 받은 삼성 화이트는 EDG, AHQ, 다크 패시지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나진 실드는 얼라이언스 클라우드 9, 카붐과 같은 D조에서 8강 진출을 노린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MS 블록게임 앞세워 X박스 강화

마인크래프트 인수 추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비디오게임 X박스 사업 강화를 위해 '인디 게임의 신화' 마인크래프트 품기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가 마인크래프트를 개발한 스웨덴 게임업체 모장(Mojang)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수가격은 20억 달러(약 2조500억원) 이상이다. 올 2월 사티아 나델라 MS최고경영자(CEO)가 취임한 뒤 최대 규모다. 협상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마인크래프트는 게이머가 상상하는 것을 블록을 이용해 만드는 게임이다. 롤플레잉게임(RPG) 방식을 결합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MS의 X박스는 물론이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S),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에서도 즐길 수 있다. 200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지금까지 팔린 수량만 5000만장이 넘는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교육출판업체인 스콜라스틱사, 완구업체 레고, 영화사인 워너브러더스 픽쳐스와도 손잡고 교육, 완구, 영화 제작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덕분에 모장은 지난해 게임과 관련 상품 판매로만 1억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WSJ은 "MS가 모장을 인수하게 되면 지난 13년간 유지해온 X박스 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용으로만 출시된 '마인크래프트'를 윈도폰용으로도 출시해 스마트폰 콘텐츠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네오아레나 마케팅 결합 '쿠키팡' 공개

오픈퍼블리셔 네오아레나는 자체 개발작 '쿠키팡'을 이달 말 출시한다.

쿠키팡은 게임과 마케팅을 결합한 신개념 게임으로 도저, 퍼즐 등 간단한 미니게임 모음으로 게임 결과에 따라 아이템부터 실물 상품까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쿠키팡은 전 연령 대상인 퍼즐게임 '퀴즐 for Kakao', 몰입도가 높은 RPG '베나토르', 1020세대를 위한 RPG '몬스터친구들 for Kakao' 등 그 동안 다양한 장르와 성격의 게임 라인업을 갖춰 온 네오아레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여성 중심의 게임이다.

/박성훈기자 zen@

최훈 작가가 자신의 웹툰 작업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WD 제공

'웹툰 작가' 최훈의 IT 감성 일상

작품 NAS 6TB WD 레드에 저장

국내 프로야구가 한창인 가운데 인기 야구 웹툰을 그리는 최훈 작가로부터 IT 감성이 가득한 작업 이야기를 들었다. 만화 작가와 IT기기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

- MLB 카툰에 이어 프로야구 웹툰을 그리시는데 야구 웹툰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야구하는 것도, 야구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다른 웹툰을 그리며 쌓인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야구 만화를 그리며 풀고 싶어 야구 웹툰을 시작하게 되었죠.

- 내용이 매일 다른 프로야구 소재를 웹툰으로 완성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기를 보면서 메모를 하고 야구 커뮤니티에서 이슈를 확인한 후 영상,사진,기록 등의 데이터를 모아봅니다. 경기가 모두 종료되면 하이라이트 영상도 챙겨요. 소재가 정해지면 낙서하듯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그리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PC에 직접 타블렛을 이용해 스케치를 합니다. 기초 스케치가 끝나면 깨끗한 펜선을 넣고 색을 칠하면 완성이 되죠.

- 웹툰 작업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역시 저장입니다. 아무래도 매일 프로야구 경기 이슈에 대해 연재 하다 보니 작업물이 날아가면 타격이 크죠. 이 때문에 제 PC 데이터는 1TB에 200GB 정도에요. 각종 사진과 영상 자료들이 400~500GB 정도이고 MP3가 50GB 있네요. 그래서 저는 NAS 전용하드 WD Red 6TB를 쓰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개념과 비슷한 개인 서버인데 제 주변 작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 NAS를 직접 써보니 어떤가요.

언제 어디서든 저장과 공유가 가능하단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점점 늘어나는 자료들이 고민이었는데 용량 걱정 없이 자료를 모으고 있네요. 영화나 야구 동영상도 마음 놓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 WD RED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거리에서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동료 웹툰 작가이자 친구인 곽백수 작가요! 돌아다니면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바로 NAS로 보낼 수 있잖아요. 하루종일 동분서주하는 이용균 야구 기자에게도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되겠네요. 저도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허우적대며 일하는데 색상은 레드가 제일 좋아요. 레드는 뭔가 전투력이 강한 느낌이에요. /장윤희기자

2014.OCT.3-4th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

LINE UP

10.3.FRI.

NEW 블락비
BLOCK B

데이브레이크
DAYBREAK

NEW BOYS REPUBLIC
소년공화국

술탄오브더디스코
SULTAN OF THE DISCO

NEW 언터쳐블
UNTOUCHABLE

정준일
JUNG JUN IL

제이레빗
J RABBIT

쏜애플
THORNAPPLE

NEW 블래스트
BLAST

낭만유랑악단
NANGMAN BAND

10.4.SAT.

비스트
BEAST

NEW B.A.P
비에이피

포미닛
4MINUTE

10cm
십센치

G.NA
지나

딕펑스
DICKPUNKS

솔루션스
THE SOLUTIONS

몽니
MONNI

옥상달빛
OKDAL

NEW 호소
HOSO

페이퍼백
PAPERBAG

10% 티켓 할인판매
8월 26일 – 9월14일

주최, 주관 인천도시공사 Incheon Development & Tourism Corporation　　주관 INNOCEAN WORLDWIDE

티켓구매 INTERPARK Ticket　　www.thekfestival.co.kr

편의점서 만나는 '기능성 화초'

세븐일레븐, '꽃 파는 편의점' 테마샵 오픈

이제 편의점에서도 기능성 화초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11일, 수도권 내 주요 상권에 위치한 5개 점을 시작으로 '꽃 파는 편의점' 테마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반려식물 같은 힐링 관련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래 종합 생활편의공간으로서 편의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화 매장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테마샵에서 판매되는 화초들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제거 등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기능성 꽃을 위주로 준비했다.

주요 상품으로는 공기정화 기능 이 외에 아토피예방에 좋은 '테이블야자(5000원)',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크로톤(7000원) 등 20여 종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젊은 싱글족이나 직장인을 비롯해 환자 병문안객들에게 특히 수요가 클 것으로 보고 상권 조사를 거쳐 이달 내 주변에 꽃집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꽃 파는 편의점' 테마샵을 5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재용 세븐일레븐 비식품팀장은 "편의점이 종합 생활편의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기존 먹거리 위주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편의점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색적이고 독특한 상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추석때 '모바일 쇼핑' 매출 급증

평소대비 15% 증가
여성 가을 패션 인기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 마켓에서 모바일 쇼핑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G마켓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모바일 구매 비중은 전체의 45%에 달했다. 이 업체의 올해 평균 모바일 구매 비중이 30% 수준임을 감안하면 15% 늘어난 것이다.

회사 측은 "귀성길 등 장소에 상관없이 쇼핑이 편리하고 명절 전 배송 지연 등의 우려로 구매를 미뤘던 상품들을 주문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초 설 연휴 기간에도 모바일 구매 비중이 평소보다 높았다. 설 연휴 직전인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모바일 구매 비중은 25% 였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인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모바일에서 구매 비중은 36%에 달해 11%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 역시 연휴 기간에도 모바일 구매 비중이 21%로 지난해 평균 16%에 비해 높았다.

이 기간 모바일로 구매한 품목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여성용 가을의류였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리 준비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많이 팔린 10개 품목 중 재킷·코트·카디건 등의 6개 품목이 여성용 가을의류 부문에 포함됐다. 이 밖에 아동용 기저귀, 기초 화장품 등 주로 여성들이 많이 쇼핑하는 품목들이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정영일기자

추석 숙취, 해답은 전통음료

칡즙·헛개차·꿀물 등 마시면 해소

추석에 명절 음식과 함께 빠지지 않은 것이 '술'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친구들과의 연속된 음주로 명절 후에도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약초 등을 주원료로 한 음료의 판매가 늘고 있다고 한다.

숙취 해소에 좋은 약초로 '칡'을 빼 놓을 수 없다. 동의보감에는 칡뿌리가 차가운 기운으로 생기는 두통을 없애고 인체의 수분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어 술에서 빨리 깨어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아직 피지 않은 칡 꽃봉오리도 한약재로 쓰이는데, 인체에 오랫동안 쌓인 술독을 풀어준다. 대표적인 칡 음료로 팔도 '비락 생칡즙'이 있다.

1994년 출시된 이 제품은 경상북도 북부 산악지대의 야생 칡만 100% 이용해 만들었다. 국산 칡의 수급이 어려워 수입 원료의 사용으로 생산량을 늘리자는 유혹도 많았지만 팔도 측은 국산 칡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귀띔했다.

또 한방에서는 간에 좋은 약초로 헛개열매와 나무를 손꼽는다. 저하된 간기능 회복은 물론 염증 등의 간 손상을 막아 간경화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다. 헛개 음료 제품으로는 CJ제일제당의 '컨디션 헛개수'를 비롯해 광동제약의 '힘찬하루 헛개차', 롯데칠성음료의 '오늘의 차 아침헛개' 등이 있다.

이 외에 숙취해소와 과음으로 인한 탈수, 저혈당 증상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꿀을 이용한 제품도 있다. CU 전용상품인 '웅진꿀헛개병'은 바로 마실 수 있는 RTD 온음료로 헛개나무 열매추출 농축액과 꿀물을 혼합한 제품이다. 최근 광고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식혜와 매실음료도 기름진 명절 음식의 소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팔도 '비락식혜'와 웅진식품의 '초록매실' 등이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보양식 곰탕 40% 할인"

육포·돈가스 등 캠핑·여행 인기먹거리 값 내려
독서의 계절 맞아 길벗 추천도서 증정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명절 피로와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절기 날씨로 면역력이 떨어진 고객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할인행사를 벌인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과 기력 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는 3만78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명절증후군 극복 여행이나 캠핑,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기가 공식품 할인전도 진행한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는 2만7000원, 100% 자연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는 3만2400원에 각각 40% 할인 판매한다.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칠칠한우떡갈비(1.08kg·4만2000원)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70% 넣은 흑임자한돈너비아니(1.08kg·2만52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50g·6봉·2만5800원) 등도 파격가로 구매 가능하다.

독서의 계절을 맞아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길벗의 도서도 증정한다.

공감 전문가인 로먼 크르즈나릭이 현대인에게 삶의 정수이자 인간관계의 핵심역량이 되는 공감능력의 중요성과 이를 키우는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는 '공감하는 능력', 공자와 소크라테스 등 위대한 지성들의 지혜가 담긴 영어 명언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제프스터디 영어명언 100강'이 이달의 추천도서다.

/정영일기자

엔제리너스커피, 라떼·디저트 6종 선봬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커피(대표 노일식)가 가을을 맞아 '라떼 3종'과 달콤한 맛의 '디저트 3종'을 10일 출시했다.

'라떼 3종'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으로 가을과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구성됐다. '솔티카라멜 마끼아또'(5400원)는 카라멜에 소금을 더해 진한 카라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바닐라 시나몬'(5000원)은 달콤한 바닐라 시럽과 풍부한 향의 시나몬을 넣어 향긋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딥초코 라떼'(5400원)는 한층 깊어진 모카베이스에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더해 깊은 다크 초코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디저트 메뉴인 '솔티카라멜 애플타르트'(5500원)는 달콤한 사과가 올려진 타르트에 시나몬과 솔티카라멜 시럽을 더한 제품이다. '솔티카라멜 하프브레드'(2900원)는 바삭하게 구운 식빵에 달콤한 솔티카라멜 시럽과 풍부한 향의 시나몬을 뿌려 달콤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어우러지도록 했다. '오!초코'(5500원)는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을 넣어 맛이 진한 게 특징이다.

/정영일기자

'데님 패션'으로 경쾌하고 세련되게

트렌치코트·원피스 등 잇따라 출시… 복고풍 소재·색상 눈길

이번시즌은 '청청 패션'이 트렌드다.

최근 가수 이효리, 소녀시대 써니 등 연예계 대표 패셔니스타들이 공식 석상에서 '청청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 1980년대 유행했던 상큼한 데님 패션이 올가을 업그레이드 돼 돌아왔다. 주요 패션 브랜드에서도 데님 소재로 만든 트렌치코트, 원피스 등 다양한 아이템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크로커다일레이디 관계자는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청청 패션은 소재와 색상을 달리해 매치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귀띔했다.

이번 시즌 크로커다일레이디는 호피무늬가 프린트 된 데님 트렌치코트(사진 왼쪽)를 선보였다. 복숭아 표면처럼 부드럽게 기모 가공한 '피치스킨 데님' 소재를 사용해 포근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인다. 편징 데님 원단의 원피스도 눈여겨 볼 만하다. A라인 실루엣으로 날씬해보이며, 다크 네이비 색상이라 겨울철 코트 안에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다.

올리비아로렌의 글램핑 아웃도어 브랜드 비비올리비아 역시 청원피스를 내놨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감에 신축성이 뛰어나 활동하기에도 편안한 것이 특징이다. 이너로 셔츠나 얇은 남방을 입으면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SK네트웍스의 여성복 브랜드 세컨플로어가 출시한 인디고 티셔츠는 벌룬 소매와 곡선 절개가 돋보인다.

게스 진은 이민호(오른쪽)와 함께 한 가을 화보에서 청청 패션의 정석을 보여줬다. 이민호는 짙은 색에 워싱이 들어간 청바지에 비슷한 톤의 데님 셔츠를 매치, 시크하면서도 세련된 데님 스타일을 완벽하게 연출했다. 게스 진 관계자는 "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잠그면 답답해 보일 수 있다"며 "살짝 풀어 헤친 셔츠는 은근한 섹시함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유명 등산화 고리불량 '무더기 리콜'

등산이 레포츠로 대중화 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많은 등산화들이 제품상 결함으로 오히려 다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LF의 '라푸마'와 케이투코리아의 'K2'를 비롯해 '밀레' '트랙스타'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브랜드에서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에 등산화를 고정시키기 위해 끈을 묶도록 설치된 고리로 인해 보행 시 소비자들이 넘어져 다친 사례가 발생했다. 라푸마·밀레·트랙스타·K2 등 4개 업체가 위해사례 발생 업체다. 또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스페이스·블랙야크·코오롱스포츠 등 3개 업체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등산화 고리는 등산화 맨 위쪽에 부착되어 있다., 이들 7개 업체 등산화의 경우 ▲고리 끝이 벌어지거나 ▲두께가 얇거나 ▲고리끼리 서로 부딪치기 쉬운 위치에 있어 소비자가 보행하다가 한 쪽 등산화 고리에 다른 쪽의 고리나 끈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등산화 고리로 인한 팔꿈치 골절이나 무릎 염좌 등의 위해 사례만 13건이었다.

소비자원 측의 시정 요구를 받은 7개 업체는 해당 권고를 수용해 등산화 고리를 안전한 형태로 개선하고 이미 판매된 등산화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고리로 무상 교환·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고리는 즉시 교환받고 등산할 때 끈을 고리 부분까지 단단히 묶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등산화를 가지고 해당 회사의 A/S 센터를 방문하면 등산화 고리를 무상으로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고리를 교환할 때 등산화 구조에 따라 내부의 천 부분을 훼손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어 업체와 상담한 후 고리 교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정영일기자 prms@

'모공 주름' 관리해야 '동안 피부'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매끈한 '도자기 피부'가 주목을 받으면서 '모공'이 동안 피부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헤라 관계자는 "사람의 피부에는 2만여 개의 모공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다"면서 "이렇게 노화로 처진 모공이 서로 이어져 주름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늘어진 모공을 바로 세워 탄력을 올려야 어려보이는 매끈한 피부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 뷰티 브랜드들이 모공 관리에 효과적인 제품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다.

헤라는 노화의 신호탄이 모공 주름을 막고 표정선과 윤곽선을 바로 잡아주는 '모디파이어' 에센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모공주름을 관리하는 셀-바이오 레이어 벨트 성분을 함유해 주름·탄력·모공이 개선된 탄탄한 피부를 선사한다.

또 코와 그 주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 모공이 많은 편인데, 모공 속 블랙헤드를 제거한다고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무리하게 짜면 오히려 모공을 더 커보이게 만들 수 있다.

씨엘포(CL4)의 '블랙헤드 리무버'는 화장솜에 적셔 피지가 쌓이는 부위에 올려두면 모공을 단단히 막고 있는 블랙헤드와 피지, 각질이 말끔하게 정리된다. 팩이나 스크럽제보다 자극이 없어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코스메슈티컬 전문 브랜드 BRTC는 늘어진 피부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 '깨끗한 모공 만들기'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블랙헤드·피지 제거에 효과적인 포어 타이트닝 세럼·포어 매직 프라이머·오버나이트 포어 타이트너 등 '모공 라인' 구매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포어 딥 클렌징 오일을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뉴스&뉴스

제일모직·YG '노나곤' 팝업스토어 열어

● 제일모직과 YG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설립한 '네추럴나인'이 패션 브랜드 '노나곤' 매장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전개에 나섰다.

제일모직은 12일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을 시작으로 '10 꼬르소 꼬모' 밀라노 본점과 중국 상해, 홍콩 등에 노나곤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고객을 겨냥한 노나곤은 버머재킷과 스웨트셔츠, 미니드레스, 스냅백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대부분 고급스러운 저지와 가죽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실용성을 높였다고 제일모직 측은 설명했다.

파타고니아, '클래식 레트로-X 재킷' 선보여

●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클래식 레트로-X 재킷'을 출시했다.

탁월한 보온성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일상 생활은 물론 등반·캠핑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입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겉감에는 부드럽고 포근한 신칠라 플리스 원단을, 안감에는 수분 흡수 기능이 뛰어난 폴리에스테르 메쉬 소재를 사용했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는 방풍·투습 기능의 특수소재 '멤브레인' 막이 있어 외부 바람은 막아주고, 땀은 밖으로 발산시켜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색상은 화이트·그레이·블랙·머스타드·올리브 등이 있으며 가격은 29만8000원.

'브룩스 러닝' 국내 상륙

● 워런 버핏이 선택한 러닝화 '브룩스 러닝'이 한국에 상륙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수입·유통 업체 코넥스솔루션은 13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브룩스 러닝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1914년 미국에서 설립된 브룩스는 올해로 100년을 맞는 브랜드로 60여 개국에서 기능성 러닝화, 의류, 액세서리를 디자인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미국 러닝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여름 눈병, 가을에 더 무섭다!

야외활동 많아져 조심… 증상 나타나면 전문의 찾아야

가을이 시작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등산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가을철 야외활동은 봄이나 여름만큼 안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시기다.

◆외출 후 손 씻기는 필수

일반적으로 황사가 심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봄과 세균 번식이 활발한 여름은 안질환 발병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을 역시 각종 안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결막염 환자 수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 10월 환자 수가 평균 33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먼지나 바람 속 이물질에 눈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가을철 야외활동 후 눈곱과 눈물이 자주 생기고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알레르기 결막염일 가능성이 크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조직인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증, 결막의 충혈과 통증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이 질환은 대부분 급성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 금방 호전되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어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출 후 손을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가려움이나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흐르는 물에 눈을 씻은 후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때 안대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안대는 분비물의 배출을 막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을에는 안구건조증을 조심해야 한다.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60% 정도로 맞추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건조한 환경에서는 인공눈물을 준비해 눈의 피로와 건조를 방지해야 한다.

김진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대표원장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에는 먼지나 외부 환경으로 세균에 감염되기 쉽다"며 "결막염은 일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는 질환인 만큼 야외활동 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청소년과 마음을 나눠요~

건강증진개발원,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내 청소년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은 '소통의 부재'가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임을 감안해 토크 콘서트와 자살예방 뮤지컬·웹툰 등 다양한 자살예방 소통 콘텐츠로 기획됐다.

먼저 청소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고(Go)함 토크 콘서트'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강연과 멘토 토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개발원은 11월과 12월 약 1만 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를 공연할 계획이며 지난해 연재된 자살예방 웹툰 '썬데이 상담소'도 매주 일요일 네이버에서 시즌 2가 연재된다.

/황재용기자

침대 먼지, 천식·폐암 등 폐질환 위험 높여

김윤근 이화의료원 교수

침대 먼지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암 등 폐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윤근(사진) 이화여대 의료원 이화융합의학연구원장은 최근 포스텍과 서울아산병원, 단국대병원 연구팀과 함께 동물실험과 625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아파트 침대에서 수집한 먼지에는 세균이 분비하는 '나노소포체(Nanovesicles)'가 대량 존재한다. 나노소포체는 세포 간 정보 교환을 위한 물질로 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먼지에 해당한다.

연구 결과 사람이 이런 나노소포체를 흡입하게 되면 기도에 심한 염증 반응이 발생해 중증 천식이나 폐기종, COPD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나노소포체는 소아천식의 중요한 위험 인자다. 나노소포체에 감작된 성인의 경우는 나이나 성별, 흡연력과 관계없이 COPD의 발생이 8배나 높았고 폐암은 38.7배의 발생 위험을 보였다.

/황재용기자

올 가을 추억여행 기회를 잡아라!

관광공사, 관광주간 맞아 다양한 이벤트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질 '가을 관광주간'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먼저 휴가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면 오는 21일까지 '사장님 휴가 보내주세요!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관광주간 홈페이지(fall.visitkorea.or.kr)에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 대표나 상사에게 보내는 재치 있는 글이나 사진을 남기고 관광공사가 제시하는 5가지의 여행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1등 당첨자 500명에게는 동반 1인을 포함한 1박 2일 가을 추억여행의 참가 기회를 준다. 나머지 당첨자 500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등이 증정된다.

또 28일까지는 '내 고향을 소개합니다 이벤트'가 열린다. 자신이 살던 고향의 명소나 명물, 맛집 등을 담은 사진과 소개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응모 가능하다.

관광공사는 추첨을 통해 우수 국내여행 상품 이용권과 경원선 DMZ 관광열차 시승권, 호텔 숙박권 등 총 900여 명에게 가을여행을 위한 다양한 경품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을 관광주간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번에는 17개 시도와 전국 3745개의 관광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황재용기자

타이완 '가오슝 사진여행' 상품 특별 판매

다음 달 23일 부산 출발… 사진작가 김홍희 동행

온라인투어(대표 박혜원)가 가을을 맞아 '가오슝 사진여행 4일' 상품을 특별 판매한다.

다음 달 23일 단 한 차례 부산에서 출발하는 상품은 대만 8경 중 하나인 어롼비 공원과 버려진 창고를 예술가들이 재창조한 보얼 예술특구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08년 니콘카메라가 세계의 사진작가 20인으로 선정한 김홍희씨가 전일 동행하며 마지막 날에는 다함께 저녁 만찬을 즐기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여행객 전원에게는 김씨가 들려주는 포토 에세이 '나는 사진이다'가 선물로 증정된다.

/황재용기자

하나투어, 올 단풍여행 캐나다 메이플로드 추천

하나투어가 올 가을 다녀오기 좋은 여행지로 캐나다 메이플로드를 추천했다.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토론토와 퀘백, 몬트리올로 이어지는 800㎞의 길이 형형색색으로 물들며 특히 단풍나무와 포플러, 자작나무 등이 어우러진 단풍길이 최고의 단풍여행을 선사한다.

한편 하나투어는 뉴욕과 워싱턴 등 미 동부 주요 도시를 관광하는 동시에 단풍길이 이어지는 캐나다 도시들을 따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미국&캐나다 동부 완전 일주 10일' 상품을 선보였다. /황재용기자

"음악열정에 100억 사업도 포기했죠"

일본에서 분주하게 활동 중인 오션이 오랜 만에 귀국해 메트로신문을 찾았다. 왼쪽부터 렌·마린·노아·카인. 로이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날 인터뷰에 참석하지 못 했다. 사진/이완기(라운드테이블)

15년차 베테랑 그룹 오션

6년 만에 재결성…제2 전성기 일본 한류 침체 속 인기 역주행

추억의 아이돌 가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재개하는 최근 가요계에 그룹 오션(카인·로이·렌·노아·마린)이 차별화된 노선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2001년 5명의 훈남들로 결성돼 화제를 모았던 오션은 원년 멤버는 2명(카인·로이)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15년차 베테랑 그룹의 내공을 일본에서 유감 없이 펼치고 있다. 한일 외교관계 악화로 일본내 한류가 급속히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빠른 속도로 팬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의 대형 기획사를 등에 업은 아이돌 가수만이 일본에서 음반 발매가 가능했지만 오션은 소극장 공연의 힘으로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첫 번째 싱글 '올 포 유/러브 러브 러브'를 발표했다. 이 싱글은 오리콘차트 K팝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고, 인디즈 부문에서 7위라는 성과를 올렸다.

"소속사(예원엔터테인먼트)가 도쿄 신오쿠보에 쇼박스라는 이름의 소극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저희의 연습장이나 마찬가지였죠. 매주 1~2회씩 라이브 공연을 했고, 지금까지 50회 이상 콘서트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팬도 늘어났죠. 가까운 곳에서 팬과 거리감 없이 함께 하다 보니 우리의 열정이 전달된 것 같아요."

오션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일본에서 한류 관련 업체에서 수여하는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데뷔한 지 14년이 지난 팀이 받기에 다소 민망하고 쑥스러운 상이지만,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받은 어떤 상보다 뜻 깊었다.

"일본에서 음반을 전국에 유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오리콘 차트에서 성과를 냈죠. 또 일본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공연으로 차곡차곡 입지를 다져가는 재미를 이제야 느끼게 됐어요."

오션은 2001년 데뷔와 동시에 화제를 모았다. 남성미 물씬 풍기는 멤버들은 세련된 창법과 호소력 짙은 소프트 R&B를 부르며 팬에게 어필했다. 보이그룹이 넘쳐나던 시기에 맨그룹으로 차별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군복무와 소속사 문제 등으로 2006년 활동을 중단했고, 6년 만인 2012년에야 다시 모였다. 원년 멤버이자 맏형인 오병진이 카인이라는 이름으로 멤버들을 불러모았다. 오병진은 의류와 김치사업으로 연매출 100억원대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음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죠. 그런데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음악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일본 활동을 권유받았어요. 무엇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나이에 대한 편견이 적다는 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용기를 줬죠."

오병진(카인)과 함께 원년 멤버인 손일권(로이)이 함께 했다. 그는 군 제대 후 연기자로 활동해 왔다. 두 명의 원년 멤버 외에 앤디·손호영·틴탑 등의 앨범에 곡을 쓴 미국 유학파 출신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렌이 2011년 합류했다.

2012년 8월 일본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현지 활동을 시작했지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두 차례나 메인 보컬이 팀을 탈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노아와 마린이 합류해 지금의 5인 체제가 완성됐다.

오병진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해외에서 활동하니 더 그랬다"며 "지금은 역대 최고의 멤버라고 자부한다. 실력은 물론 배려심도 최고"라고 멤버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또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던 오병진은 절친한 동생인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의 조언이 일본 활동에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일본 내에서 오션의 팬층은 다른 국내 아이돌 그룹의 팬들과 다르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기획된 아이돌이 아닌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자생한 이들에 친근함을 느낀다. 이제 매 공연마다 1000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모을 정도로 인지도를 높였다.

"지방 팬이 도쿄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찾아와 주는 것을 보고 무척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도쿄 위주로 활동해 왔는데 다음달 새 앨범을 발표한 뒤로는 홋카이도부터 후쿠오카까지 곳곳을 다니며 오션을 알리려고 해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아이돌 최강 유닛 태티서 돌아온다

16일 미니 2집 '할라' 발표… 국내외 관심 고조

태티서의 티파니(왼쪽부터)·태연·서현 (위). 11일 공개된 태연 티저 사진(아래).

아이돌 그룹 최강 유닛으로 꼽히는 소녀시대의 태티서(태연·티파니·서현)가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소녀시대-태티서는 16일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두 번째 미니앨범 '할라'의 전곡 음원을 공개한다. 오프라인 음반은 18일 출시된다.

이번 앨범은 2012년 첫 미니앨범 '트윙클' 발매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소녀시대-태티서는 '트윙클'로 지상파·케이블 음악 방송에서 트리플 크라운(3주 연속 1위)을 차지했다.

또 미국 아이튠즈 앨범차트 4위에 올라 당시 한국 가수 최초로 톱 5에 드는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 1위, 대만 음악 차트 1위 등 국내·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소녀시대-태티서는 11일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SM타운 페이지 등에 새로운 콘셉트로 완벽하게 변신한 태연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해 컴백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태연은 데님 핫팬츠와 톱 차림으로 매끈한 몸매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소녀시대-태티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16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컴백 쇼케이스 '할라'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서태지 복귀 본격 시동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 티저영상 공개

가수 서태지가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태지 컴퍼니는 지난 10일 서태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의 티저 영상 공개와 함께 "온라인·방송사·영화관에서 전방위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TV 광고·영화관 등에 나오는 이번 티저 영상엔 다음달에 발표 예정인 서태지의 정규 9집에 대한 힌트가 담겨있다. 약 5년의 긴 공백기 끝에 컴백하는 서태지의 새 음반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티저 영상이 팬들의 호기심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태지는 다음달 18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컴백 공연 '크리스말로윈'을 개최한다. 이날 공연은 9집 공개와 함께 서태지 데뷔 22주년을 기념해 '하여가' '컴백홈' '교실이데아' '너에게' 등 히트곡을 총망라하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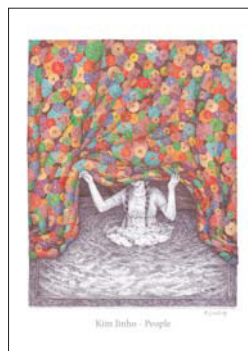
/김지민기자 lang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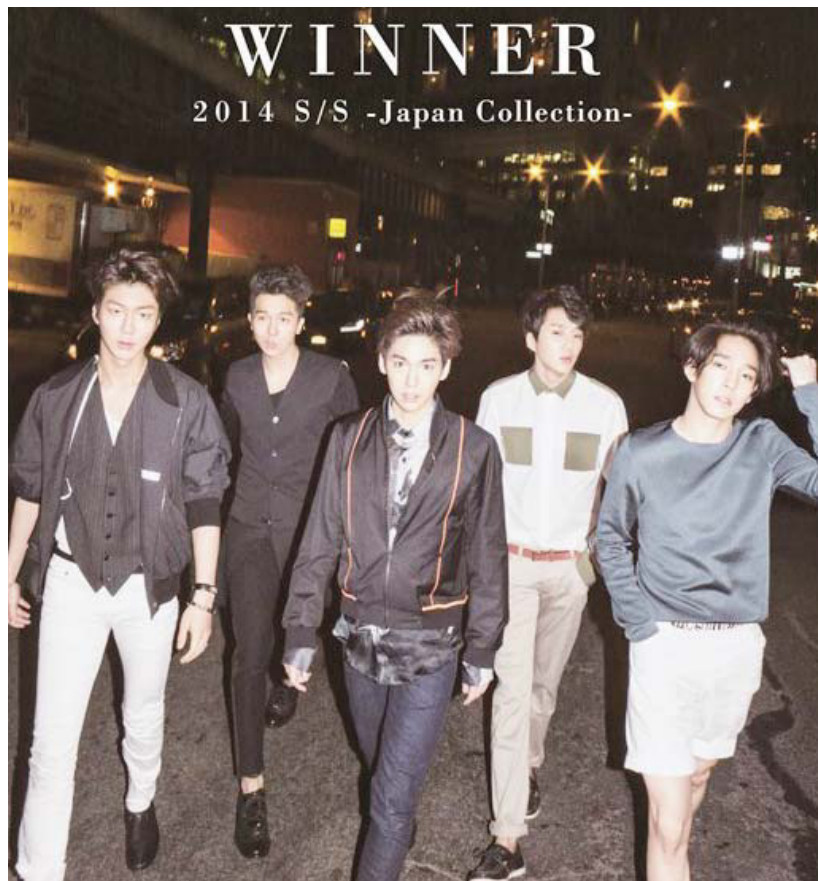
SG워너비 김진호 정규 2집 발매

'사람들' 17일 공개…SNS 담벼락서 영감

SG워너비 김진호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사람들'의 재킷 이미지(사진)가 11일 공개됐다.

김진호는 오는 17일 정규 2집 음원 공개에 앞서 평소 팬들과 소통 창구로 이용하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앨범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 준비에 앞서 김진호는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대학교·병원 등에 공연을 다니며 사람들과 학생들의 걱정·불안·생각들을 나누며 노래했다. 이후 김진호는 공연에서 만난 사람들과 SNS 친구를 맺은 뒤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라온 글과 생각들, 팬들의 메시지에서 영감을 받아 앨범을 완성했다.

김진호는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통된 경험을 하며 음악의 힘을 믿게 됐다"며 "그 중 KBS2 '불후의명곡'에서 불렀던 자작곡 '가족사진'을 부를 때 모두 눈이 아닌 마음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줬다. 마음으로 들어주는 그들로 인해 내 삶과 노래는 값진 의미로 채워지고 있다. 내 목소리와 함께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민기자

위너, 일본 데뷔앨범 오리콘 2위

YG엔터테인먼트 신예 그룹 위너(사진)가 일본에서도 심상치 않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위너는 10일 일본에서 발표한 데뷔 앨범 '2014 S/S-재팬 컬렉션'으로 하루에만 3만1114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2위에 올랐다.

YG엔터테인먼트는 "위너는 이미 한국에서 음원차트 1위를 싹쓸이 하고 줄세우기를 했으며 신인 최단기간 음악방송 1위를 했다. 신인임에도 일본 데뷔 앨범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건 의미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발매한 앨범에는 한국 앨범 수록곡 10곡에 위너가 YG 신인 보이그룹 선발 프로그램 '윈'의 파이널 배틀에서 선보인 노래 '고 업'과 '저스트 어나더 보이' 등이 수록됐다. 11곡은 일본어로 담았으며, 송민호의 솔로곡 '걔 세'만 한국어 가사로 실었다.

위너는 11일 도쿄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콘서트 투어 '위너 1st 재팬 투어 2014'에 돌입했다. 투어는 23일 삿포로, 28일 후쿠오카, 30일~10월 1일 나고야, 3~4일 남바, 10~11일 도쿄 등 총 5개 도시의 제프 무대에서 11회 공연된다.

/유순호기자

매일 아침 흔들리는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초근접 직장 리얼리티
오늘부터 출근
매주 | 토 | 밤 11시 10분 tvN / 9월 20일 첫방송

수영, 신세경보다 먼저 웃었다

시청률 '…봄날' 첫방송서 '아이언 맨' 앞서

본명 최수영(사진)으로 안방을 찾은 소녀시대의 수영이 수목드라마 시청률 경쟁에서 신세경에 판정승을 거뒀다.

감우성·최수영 주연의 MBC '내 생애 봄날'과 이동욱·신세경 주연의 KBS2 '아이언 맨'이 10일 동시에 첫 방송을 시작해 시청률 7.5%(TNmS 전국기준)와 6.0%를 각각 기록했다.

전작인 KBS2 '조선총잡이'와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가 4일 마지막 방송에서 12.8%와 10.5%를 기록했지만, 후속작 시청률 경쟁에서는 MBC가 역전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봄날'의 첫 회 시청률은 전작인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첫 회 시청률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시간대 시청률 1위인 SBS의 '괜찮아, 사랑이야'(11.1%)보다는 3.6%포인트 낮았다.

'…봄날'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감우성·최수영·이준혁·장신영 등 배우들의 열연과 동화 같은 영상미를 더해 정통 멜로 '웰메이드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했다. 2007년 에이즈를 소재로 시청자에게 잔잔한 감동과 새로운 인식을 심어줬던 '고맙습니다'(장혁·공효진 주연)의 이재동 PD가 연출하는 작품이다. 이번에는 장기 이식을 통해 새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봄날'의 여주인공 이봄이(최수영)는 '고맙습니다'에서 아역배우 서인애가 맡았던 역할의 이름이고 이 드라마 첫 회의 첫 대사는 '고맙습니다'라고 시작하는 등 묘하게 두 드라마가 오버랩 되며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 기자간담회에서 나영석 PD(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CJ E&M

'꽃보다 청춘'에 진짜 청춘 떴다

유연석·손호준·바로도 '몰카'로 라오스 행
나영석 PD "갑작스런 여행 포착하기 좋아서"

tvN 세 번째 배낭 여행 시리즈 '꽃보다 청춘'의 '진짜 청춘' 라오스 편이 12일 방송된다.

앞서 방송된 페루 편에서 평균 나이 40대의 이적·윤상·유희열은 나영석 PD의 몰래 카메라에 속아 아무런 준비 없이 페루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라오스 팀 역시 마찬가지다. 평균 나이 20대의 유연석·손호준·바로는 tvN 광고 영상을 찍는 것으로 알고 방송국에 모였다가 인천공항으로 끌려가며 갑작스러운 배낭 여행길에 오른다.

나 PD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꽃청춘'이 여행에 앞서 몰래 카메라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젊은이들의 여행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도 함께한 친구들 덕분에 즐거울 수 있는 게 젊은이들의 여행이 지닌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몰래 카메라는 출연진을 골탕 먹이려는 장치가 아니다. 출연진에게 지금 당장 어디론가 떠나자고 했을 때 곤란하지만 내심 한편으론 설레고 기뻐한다. 갑작스러운 여행으로 일상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해주면 굉장히 짜릿한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순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몰래 카메라다. 조금 짓궂은 방법이지만 그래야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떠나는 여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팀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신효정 PD는 이날 "라오스 편은 역대 '꽃보다' 시리즈 중 가장 적은 제작비가 들었다"고 밝혔다. 신 PD에 따르면 유연석·손호준·바로는 여행 기간 동안 하루에 1인당 경비 3만원으로 숙박·교통·식비·옷 등을 모두 해결했다.

신 PD는 "20대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페루 같은 곳에 가긴 어렵지만 라오스는 적은 경비로도 갈 수 있는 곳이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라면 '나도 친구들이랑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또 이 세 멤버들의 헐벗은 모습이 자주 나온다. 여성 시청자들이 좋아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라오스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년 연속 최고의 배낭여행지다. '꽃청춘' 팀이 라오스에 갔을 땐 우기가 겹쳐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지만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배낭여행객을 보면서 청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정치 깡패' 이병헌 어떤 모습?

영화 '내부자들' 스틸 공개… 첫 사투리 연기

영화 '내부자들'에 출연하는 이병헌의 첫 스틸 컷이 공개됐다.

이병헌은 작품에서 권력자들의 사냥개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다 폐인이 된 뒤 복수를 다짐하는 정치 깡패 안상구 역을 맡았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병헌은 결혼 후 한층 더 거칠고 남성적인 모습이다. 이번 영화에서 데뷔 후 처음으로 사투리에도 도전하며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내부자들'은 정치 깡패 역의 이병헌, 열혈 검사 역의 조승우, 노련한 언론사 고문 역의 백윤식이 출연해 캐스팅만으로도 상영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내부자들'은 웹툰 '미생'과 '이끼'의 윤태호 작가가 연재했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영화 '파괴된 사나이'의 우민호 감독이 연출하며 대한민국의 부패와 비리를 내부자들을 통해 밝히는 범죄드라마다. '내부자들'은 현재 촬영 중이며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그룹 B.A.P /인천도시공사 제공

비스트·지나·블락비·BAP 등 15팀 출연

인천도시공사가 한류문화축제 '더 케이 페스티벌(The K Festival)' 최종 명단을 4일 공개했다.

그룹 블락비와 B.A.P, 보이즈 리퍼블릭, 언터쳐블, 호소, 블래스트 등 6개 팀이 마지막 3차 라인업에 포함됐다. 앞서 출연이 확정된 비스트, 포미닛, 지나, 데이브레이크, 10cm, 정준일, 술탄오브더디스코 등 15개 팀과 함께 다음달 3~4일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리는 한류문화축제 무대에 선다.

'더 케이 페스티벌'은 국내외 아이돌 및 차세대 K팝 가수들이 출연하는 콘서트다. 팬미팅까지 마련된 아웃도어형 음악 축제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에 맞춰 열린다.

인천도시공사는 아시안게임 방문객과 선수단, 스태프가 경기 일정을 마친 후 즐길 수 있는 문화 종합 행사로 구성했다. 행사 기간 중엔 K팝 외에도 K푸드, K패션, K뷰티, K필름, K스마트 IT 같은 다양한 장르의 한류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더 케이 페스티벌' 티켓은 인터파크에서 오는 14일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기간 티켓을 구매한 관객에게 추첨을 통해 오는 17일 열리는 2014 한류관광콘서트 티켓 2장을 지급한다. /전효진기자 jeonhj89@

궁합 지수 100 '스타♥채널'

유해진-롯데·조세호-SBS·전현무-JTBC 함께하면 '대박'

흥행의 조건은 무엇일까? 연예인의 스타성이나 연출진의 능력이 기본이지만 연예인·제작진과 궁합이 맞는 매체나 채널, 투자사도 빼놓을 수 없는 흥행 요소다. 특히 채널은 완성된 콘텐츠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스타와 연출진의 역량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유해진과 롯데엔터테인먼트, 조세호와 SBS, 전현무와 JTBC는 환상의 호흡을 보이며 작품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다.

영화 '해적'의 유해진, SBS '룸메이트'의 조세호, JTBC '히든싱어'의 전현무.(왼쪽부터 시계방향)

◆ 유해진♡롯데엔터테인먼트

유해진은 올해 영화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와 함께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 '해적 : 바다로 간 산적'은 10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관객수 811만9882명을 기록했다. 개봉 36일째에 접어들었지만 뒷심을 보여주고 있다. '타짜-신의 손'은 11일 기준 242만7828명의 누적 관객수를 동원하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로는 최단 기간(7일)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유해진은 '해적'에서 배 멀미가 심해 바다를 떠나 산적이 된 철봉을 연기한다. 산을 오르며 '음파음파' 호흡하는 모습이 800만 관객에게 큰 웃음을 준다. '타짜2'에선 함대길(최승현)의 파트너 고광렬로 등장한다. 전작 이후 8년 만에 다시 고광렬 역을 맡은 유해진은 최승현과 함께 코믹과 감동을 선사하며 극에 재미를 더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우연히 '해적' '타짜'에 유해진이 연달아 출연하게 됐다"며 "유해진이 소화하지 않은 철봉과 고광렬을 상상할 수 없다. 캐릭터와 배우의 궁합이 흥행을 이끈 것 같다"고 말했다.

◆ 조세호♡SBS·전현무♡JTBC

조세호는 SBS '룸메이트'를 통해 가명 양배추가 아닌 본명으로 대세가 됐고 SBS '패션왕코리아2'에서도 활약 중이다. 연예계 입문도 SBS를 통해서였다.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이 된 후 다수의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했다. 조세호라는 본명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그는 올해 SBS '룸메이트'에서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호감을 얻으며 출연진 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룸메이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연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무는 JTBC '히든싱어' '비정상회담'으로 2012년 KBS 퇴사 후 예능 진행자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프로그램은 방송 전과 직후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장악하며 지상파 예능을 위협하고 있다. '히든싱어'에선 개그맨 못지 않은 입담으로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비정상회담'에선 적재적소에 유머를 해 시청자로부터 "진행이 맛깔 난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

JTBC 측은 "PD들이 프로그램 특징에 맞는 진행자를 선택하고 전현무의 진행 스타일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안방서 다시 즐기는 인기 웹툰

다음 '미생'·네이버 '닥터 프로스트' 케이블 드라마로 제작

OCN '닥터 프로스트'의 송창의

tvN '미생' 예고편 영상.

네티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인기 웹툰 두 편이 안방극장을 찾을 예정이다.

tvN은 지난해 모바일 무비로 만들어지기도 했던 윤태호 작가의 '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 지난 2011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종합무역상사 인턴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다음 웹툰 '미생'은 연재 당시 사회초년병의 눈으로 직장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샐러리맨의 교과서'라고 불리며 작품성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그래는 앞서 다음 모바일 무비 '미생 프리퀄'의 주인공을 맡았던 임시완이 다시 한 번 연기한다. 장그래는 바둑을 잊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는 언제나 바둑으로부터 얻은 통찰임을 깨닫는 인물이다.

임시완은 "'미생'을 하고 싶었다. 장그래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느낄 수 있었고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미생'은 사람얘기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꼭 반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종합무역상사의만년과장으로 일 중독이자 위아래로 신임이 두터운 베테랑 오상식 과장 역에는 이성민이 확정됐다. 오 과장은 다른 사원에 비해 학력도 경력도 부족한 장그래를 유일하게 믿어주고 새로운 운명을 부여하는 인물이다.

이성민은 "원작이 워낙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보니 민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다.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원작을 보지 않고 있다. 김원석 감독의 작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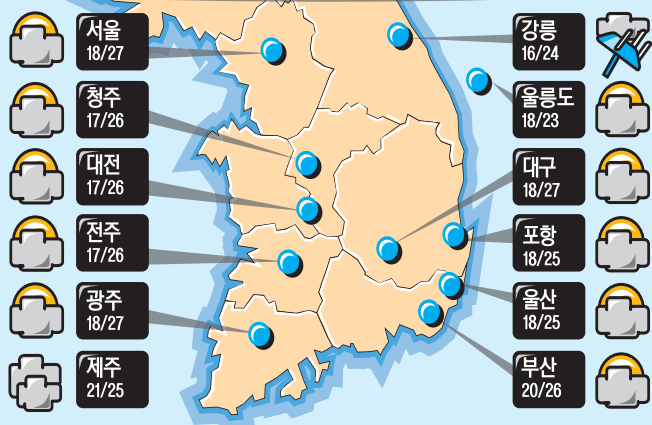
다른 대기업을 다니다 종합무역상사로 입사해 출중한 업무능력으로 실무에 조기 투입되는 신입사원 안영이 역은 강소라가 연기한다. 안영이는 일도 잘 하고 성격도 좋지만 자신을 질투하는 선배들 때문에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완벽한 입사 조건을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스펙 쌓기'를 준비한 이 시대 전형적인 취업준비생 장백기 역은 강하늘이 맡았다. 드라마 '미생'은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이며 오는 17일 첫 방송된다.

OCN은 오는 11월 이종범 작가의 '닥터 프로스트'를 드라마로 구현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독자만화대상 온라인 만화상을 수상하며 인기를 모은 네이버 웹툰 '닥터 프로스트'는 천재 심리학자인 닥터 프로스트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사팀에 합류해 범죄를 해결하는 심리 수사극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이종범 작가는 '닥터 프로스트'에 어렵게만 느껴지던 심리학을 쉽고 재밌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주인공 프로스트는 송창의가 연기한다. 프로스트는 30대 중반의 미남 천재 심리학자로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내면엔 타인에 대한 애정·연민·동정 등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얼음같은 인물이다. 프로스트는 일상 속 범죄를 천재적인 추리능력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심리학으로 치료한다.

송창의는 "원작 웹툰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신선했다"며 "프로스트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라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캐릭터였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게 돼 기쁘고 색다른 연기 변신에 많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langkim@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져 수분을 쉽게 빼앗기므로 창문을 닫고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집안 습도를 50~60% 사이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마마야 물렀거라, 지석영 대감 행차시다"

서울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면 옛 '대한의원' 본관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907년에 건립된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적인 병원 건물로 서양 의료기술과 의학교육을 국내에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 기구다. 1885년에 개원한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인 '제중원'과 1899년에 문을 연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 그리고 '광제원'의 맥을 잇고 있다고 평가된다.

물론 일제에 강점된 뒤에는 이름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차츰 조선인의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근대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력이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도구로 변질되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병든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아니 병들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조선인이 있었다. 대표적인 이가 지석영이다. 의학교가 존속한 1899년부터 1907년까지 내내 교장을 맡기도 했던 지석영은 일본으로부터 '종두법'을 도입해 '마마' 퇴치에 앞장선 인물이다.

'마마'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보다도 두려울 정도라 하여 '호환마마'라 일컬었을까.

다행히 지석영과 같은 이들의 고생과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난 1979년 마마는 인류가 개발한 백신을 통해 완전히 퇴치된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의원 건물 안에 마련된 의학박물관에 가면 그런 어마무시한 마마를 물리치기 위해 애쓴 지석영의 노고를 돌아보는 전시를 볼 수 있는데, 이름이 '마마야 물렀거라, 지석영 대감 행차시다'이다.

물론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석영과 같은 인물의 업적을 앞에 내세운 반면 이전의 조선 정부가 했던 마마 퇴치 노력을 폄하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옛 대한의원 의학박물관이 당시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건물을 안팎으로 살펴보고 전시물을 훑어보다 보면 근대 의학기술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땅의 다양한 풍경이 머릿 속에 그려진다는 점이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7	4
7			5		9	8		
		8						5
	4			5	8		2	
8	7						3	6
	6		3	7			4	
5						2		
		6	2		5			1
2	8			9				

			9			5	1	
	7				1	6		
			4		3		7	9
1	3					9	5	
				1				
	5	2					3	4
6	4		5		9			
		8	6			2		
	2	5			7			

스도쿠 정답

6	5	9	8	1	2	3	7	4
7	3	4	5	6	9	8	1	2
1	2	8	7	4	3	6	9	5
3	4	1	6	5	8	9	2	7
8	7	5	9	2	4	1	3	6
9	6	2	3	7	1	5	4	8
5	1	3	4	8	7	2	6	9
4	9	6	2	3	5	7	8	1
2	8	7	1	9	6	4	5	3

4	6	3	9	7	2	5	1	8
2	7	9	8	5	1	6	4	3
5	8	1	4	6	3	2	7	9
1	3	6	2	4	8	9	5	7
7	9	4	3	1	5	8	6	2
8	5	2	7	9	6	1	3	4
6	4	7	5	2	9	3	8	1
9	1	8	6	3	4	7	2	5
3	2	5	1	8	7	4	9	6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파혼 경험 있는데 좋은 일 생길까요
자기계발 힘쓰면 2017년 결혼 가능

Q susu23 여자 85년 09월 23일 양력 오전 8시 30분

선생님. 신문을 통해 저도 상담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집안의 반대 등으로 결혼이 힘들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지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고, 저는 얼마 후 유산까지 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져 2년이 넘게 추스르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어두운 과거가 있게 된 저이기에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죄책감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 될는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요.

A 음(陰)의 속성이 강해 일종에 의타심(依他心)이 있습니다. 자좌관고(自座官庫:앉은자리에서 남자가 창고로 갇혀 있는 형국)에 신금(辛金)이라는 칼을 두었으니 남편의 덕이 박하고 생이 사별(生離死別)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내년 2015년 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결혼은 생일지가 관성과 합을 이루는 2017년에 가능하며 2014~2015년 탕화살(湯火殺)의 작용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주의 천간(天干)에 꺾어진 글자(乙, 丑, 巳, 己)가 형성되는 곡각(曲脚)이 있어 사고에 유의하십시오. 아니면 생일시지에 파살(破殺)이 작용하여 다른 만남등 매사를 조급하게 시도 하다가 무리하게 되어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화기(火氣)가 많아도 걱정이지만 귀하처럼 없어도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은 빨리 잊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을 갖도록 독서와 함께 잘할 수 있는 기술하나를 갖도록 해보십시오. 자기 계발을 하면 자신의 입지를 올리게 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바쁜 벌이 고민할 시간조차 없다'는 말을 기억 하세요. '오나 야오스' 작가의 '성공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일부 인용 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새로운 자아가 성립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약하여 말씀 드립니다.

반드시 잘 되리라 확신을 갖도록 하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항상 밝은 표정이 복을 부른다고 생각 하세요. 자신을 컨트롤하고, 엄격하게 다스리는 자세가 필요 합니다. 오전8시 30분의 기운은 남자의 외모를 우선 중시할 수 있어 자기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7가지 습관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2일 (음 8월 19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욕심 부리면 몸만 상한다. **60년생** 고질병 도지지 않도록 신경 써라. **72년생** 낯선 가치도 포용하는 게 이롭다. **84년생** 눈앞 이익보단 장기적 손실 생각할 것.

49년생 성급한 결정은 피하라. **61년생** 발 빠르게 움직여야 손해 안 본다. **73년생** 안 된다고 못 박지 말고 대화할 것. **85년생** 생각도 못한 희소식 날아든다.

50년생 자녀 덕에 보람을 느낀다. **62년생** 반대가 심한 일은 재고할 것. **74년생**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사용할 수 없다. **86년생** 솔직해서 너무 솔직한 것도 흠~.

51년생 건강의 적신호 무시하지 말라. **63년생** 정상 지키기도 매우 고달프다. **75년생** 약속 못 지켜서 망신당하지 않도록~. **87년생** 행운을 부르는 귀인이 나타난다.

52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64년생** 웃음을 선사하는 자녀가 효웃~. **76년생** 조직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역 맡는다. **88년생** 맞지 않는 잣대로 남 평가 말라.

53년생 배우자 의견 존중할 것. **65년생** 대세 반대하면 후폭풍 거세다. **77년생** 난관은 혼자 힘으로 돌파할 것. **89년생** 상사에 싫은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한다.

42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 생긴다. **54년생** 겸손하데 비굴하게 처신하지 말라. **66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8년생** 내 식구부터 챙긴 후 다음을 생각할 것.

43년생 젊은 사람과 맞서지 말라. **55년생** 고집부리면 적만 늘어난다. **67년생** 겉모습보단 실속을 먼저 생각할 것. **79년생** 사람을 얻으려면 마음의 빗장 풀어야 한다.

44년생 정면 승부하면 잃는 게 많다. **56년생** 보람된 일에 적극 참여할 것. **68년생** 원칙 벗어나면 나중에 땅을 친다. **80년생**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라.

45년생 금전문제로 걱정할 수도. **57년생**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 큰 것 놓친다. **69년생** 어정쩡하게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 삼가라. **81년생** 오늘보단 내일 생각할 것.

46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58년생** 감정 기복이 심하니 신경 써라. **70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된다. **82년생** 영혼은 팔지 않겠다는 각오로 신념 지켜라.

47년생 모처럼 가족여행 즐겁구나. **59년생**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71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욕심 버려라. **83년생**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 날릴 일 생긴다.

독립 야구팀 고양 원더스 역사 속으로

'한국 최초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가 전격 해체를 결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창단을 선언, 같은 해 12월 12일 본격 출범한 고양 원더스는 3시즌 만에 해체 소식을 알려와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고양 원더스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작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단을 3년간 운영하면서 창단을 제의했던 KBO와 구단 운영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아쉽지만 2014년 시즌을 끝으로 여기서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며 "당분간 훈련 여건을 최대한 제공하면서 선수와 코칭스태프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단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원더스는 이날 오전 고양시 국가대표 훈련장에서 열린 선수단 미팅에서 해체 결정을 통보하며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2~3개월치 월급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칭스태프가 프로구단 테스트를 앞둔 선수들의 훈련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단은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훈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근 고양 원더스 감독이 11일 경기도 고양시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열린 선수단 미팅에서 팀 해체 결정을 선수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KBO와 견해차·불투명한 미래에 아쉬운 해체 결정

◆방출 선수 주축 기적 일궈내

원더스는 2011년 겨울 프로구단에 지명받지 못하거나 방출당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창단했다.

원더스는 퓨처스(2군)리그에서 번외경기를 펼치며 2012년 48경기를 소화했다. 그 해 20승 7무 21패(승률 0.488)를 기록했고 지난해 27승 6무 15패로 승률을 0.643으로 끌어올렸다. 올해는 교류전을 90경기로 확대했고 43승 12무 25패 승률 0.632를 기록하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첫 프로구단으로의 입단은 투수 이희성이 달성했다. 2012년 7월 이희성이 LG 트윈스에 입단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KT 위즈와 계약한 외야수 김진곤까지 22명이 프로에 입단하는 기적을 일궜다.

8월 열린 프로야구 2015 신인 2차 지명회의에서는 포수 정규식이 LG 2차 4라운드 지명으로 원더스 선수 최초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에 입성했다. 정규식은 계약을 마치면 원더스 출신 23번째 프로야구 진출 선수가 된다.

독립리그가 없는 상황에서 원더스는 한국 프로야구 퓨처스 리그팀과 교류전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고 매년 KBO와 경기 수에 대해 논의해 왔다.

원더스 측은 꾸준히 KBO에 퓨처스리그 정규편성을 요청해 왔고 KBO는 48경기였던 교류전 수를 올해 90경기로 늘리며 내년에도 90경기를 치르기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더스는 경기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김성근 감독 향후 행보 주목

고양 원더스 김성근(72) 감독은 다시 야인으로 돌아간다.

초대 사령탑으로 3시즌 동안 원더스를 이끌어 온 김성근 감독은 프로야구 구단이 사령탑을 교체할 때마다 영입 1순위로 거론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구단의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성근 감독은 구단으로부터 영입 제의를 받을 때마다 "고양 원더스가 존재하는 한, 팀을 떠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구단의 이번 해체 결정과 2014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감독 영입 작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근 감독은 1984년 OB 베어스의 사령탑에 오른 뒤 20시즌 동안 주로 패배에 익숙한 만년 하위팀을 포스트시즌 진출과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개조의 1인자'로 명성을 높여 왔다.

2007~2010년 SK를 4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시켰고 3차례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성근 감독의 지도력은 절정에 올랐다.

김성근 감독은 고양 원더스 해체와 관련해 "일단 원더스 선수들이 시즌 종료 후 열리는 프로야구 구단의 신고 선수 선발 테스트나 일본 독립리그 트라이아웃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사비를 털어 구단을 지원했던 허민(38) 구단주와 김성근 감독의 만남도 야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원더스를 통해 한국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됐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레니 감독 "서울 라이벌 기대 크다"

이랜드FC, FC서울과 '한 지붕 두 가족'

한국 프로축구 신생팀인 이랜드FC의 첫 사령탑에 오른 마틴 레니(39·사진) 감독이 '서울 라이벌' 구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레니 감독은 11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창단 팀의 초대감독을 맡게 돼 기쁘다"며 "특히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아직 팀이 하나 뿐인데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레니 감독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보니 레인저스-셀틱, 스코틀랜드-잉글랜드 등 많은 라이벌을 봐왔다"며 "라이벌 체계는 경기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팬들의 열정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FC서울과의 라이벌 구도를 예고했다.

이날 레니 감독은 공격 중심의 이기는 축구로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며 팀 운영 콘셉트를 밝혔다. 그는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축구를 봐온 팬이라 공격 축구를 좋아했다"며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경기로 즐거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레니 감독은 2005년부터 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미국 프로축구 2부 리그 하위권 팀인 클리블랜드 시티스타즈(2007~2008년)와 캐롤라이나 레일호크스(2009~2011년)를 단기간에 우승으로 이끌며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에는 메이저리그사커(1부 리그) 밴쿠버 화이트캡스 사령탑에 올라 부임 첫해에 최하위권에 있던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던 이영표(37·현 KBS 해설위원)를 영입한 감독도 그였다. /김학철기자

5회 연속 종합 2위 향해

태극전사 인천 AG 결단식

안방에서 맞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태극전사'들의 목표는 종합 2위다.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결단식을 열고 5회 연속 종합 2위 달성에 도전하는 결전 의지를 다졌다.

오는 19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릴 이번 대회는 다음달 4일까지 16일간 36개 종목에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가맹국 45개 나라가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선수 831명·본부임원 60명·경기임원 177명 등 총 1068명으로 구성된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단장은 세정그룹 회장인 박순호 대한요트협회장이 맡았다.

이날 결단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각 경기단체장·시도체육회장, 선수단 가족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학철기자

프로야구 전적 11일

■잠실

한화	030	300	000	6
두산	104	021	01X	11

△승=니퍼트(12승 7패) △패=안영명(6승 6패) △홈런=송광민 8호(4회 3점) 김재호 3호(8회 1점·이상 두산)

■문학

넥센	000	100	100	2
S K	330	220	10X	11

△승=채병용(8승 10패) △패=김대우(2승 2패 1세이브) △홈런=이명기 4호(5회2점·SK)

■대구

KIA	000	210	010	4
삼성	000	010	022	5

△승=안지만(5승 3패 1세이브) △패=어센시오(4승 1패 19세이브) △홈런=김주형 6호(4회2점) 이범호 16호(8회1점·이상 KIA)

■마산

롯데	000	000	023	5
N C	000	000	100	1

△승=이정민(1승 1패) △패=이재학(9승 8패)